

이방인

알베르 카뮈

김푸른솔 옮김

이방인

지은이: 알베르 카뮈

옮긴이: 김푸른솔

<http://blog.jinbo.net/kimpoo88>

L'étranger

d'Albert Camus.

Édition Gallimard, 1942.

Copyright © 김푸른솔, 2014.

이 번역본은 무료로 배포 가능합니다. 단, 영리 목적 사용은 불가능하며, 옮긴이의 동의 없이 일부나 전부를 어떠한 형태로도 가공 내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DX명조로 작성되었습니다.

차례

제1부 4

제2부 38

제1부

I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니 어제였나, 잘 모르겠네. 양로원에서 전보를 보냈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 근조.’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어찌면 어제였을 수도.

양로원은 마랑고에 있다. 알제에서 80킬로미터 거리다. 두 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중에 도착하겠지. 그럼 거기서 밤을 새우고 내일 저녁까지 돌아올 수 있다. 사장에게 이틀 휴가를 달라고 했고, 내 사정상 사장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썩 내킨다는 표정은 아니었다. 나는 심지어 “제가 잘못된 건 없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사장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순간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다. 어쨌든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었으니. 오히려 사장이 조의를 표했어야 하는데. 내가 모레 상장을 달고 나타나면 그때 표하겠지. 아직은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은 어중간한 상태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일이 정리될 테고, 모든 게 보다 공적인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이다.

두 시에 버스를 탔다. 매우 더웠다. 평소처럼 셀레스트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다들 내 소식을 듣고 많이 안타까워했다. “한 분뿐인 어머니셨는데.” 셀레스트가 말했다. 떠날 때가 됐고, 모두 나를 문밖까지 배웅해줬다.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리기 위해 에마누엘네 집에 들러야 해서 조금 정신이 멍했다. 에마누엘은 몇 달 전 삼촌을 잃었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었다. 서두르고 달렸다. 버스는 흔들렸고 휘발유 냄새는 진동했다. 도로와 하늘의 반사광까지 더해졌다. 이 모든 것들 때문인지 난 깜박 잠들었다. 가는 내내 잤다. 깨어나 보니 옆자리 군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군인은 미소를 짓더니 멀리서 왔느냐고 물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네.”라고 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킬로미터 거리다. 양로원까지 걸어갔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엄마를 보려고 했다. 그런데 수위가 원장부터 만나야 한다고 했다. 원장이 다른 일부터 처리하는 동안 나는 기다렸다. 기다리는 내내 수위가 말을 붙였고, 마침내 원장과 만나게 됐다. 원장실로 안내받았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단 쪼그만 노인네였다. 원장은 맑은 눈으로 나

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악수를 했는데 어찌나 오래 손을 붙잡고 있던지 이걸 어떻게 빼야 하나 난감할 정도였다. 원장은 관련 기록을 보더니 “어머님께서 3년 전부터 이곳에 계셨군요. 아드님이 유일한 부양자였네요.”라고 말했다. 마치 비난받는 기분이어서 뭐라도 해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을 끊고 부드럽게 말했다.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아드님은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든 형편이더군요. 아드님 별이로는 어머님께 필요하셨던 간병인을 붙여줄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어머님께선 이곳에 머물며 더 행복해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원장은 덧붙였다. “어머님께선 여기서 비슷한 연배 분들과 친분을 쌓으셨죠. 같이 지나간 시절을 떠올리며 지내셨던 겁니다. 아드님과 같이 계셨다면, 아마 심심해하셨을 겁니다. 아드님은 젊으니까요.”

맞는 말이었다. 나랑 한집에 사셨을 때 엄마는 언제나 아무 말 없이 나를 주시하며 시간을 때우셨으니. 처음 양로원으로 모셨던 며칠간 엄마는 계속 우셨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거였다. 양로원에서 몇 달 지내시더니 언제 울었느냐는 듯이 잘 적응하셨다. 익숙해지셨으니까. 그래서였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1년 동안은 통 찾아뵙질 않았다. 한 번 찾아뵈려면 일요일을 전부 날려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뿐인가, 버스를 타러 가야 하지, 표를 사야 하지, 두 시간 동안 이동해야 하지...

원장이 또 말을 걸었다. 어차피 잘 안 듣고 있었지만 이 말은 알아들었다. “어머님을 뵙고 싶지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원장은 서둘러 문으로 안내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원장은 설명했다. “어머님을 작은 빈소에 안치시켜 드렸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을 놀래고 싶지 않거든요. 채용자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다른 분들께서 며칠 정도 날카로워지신답니다. 그럼 우리가 일하기 힘들어지지요.” 우리는 서너 명씩 모여 떠들고 있는 노인들로 가득 찬 마당을 가로질렀다. 우리가 지나가려 하면 조용해졌다가,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수다를 떨더라. 숨죽인 채 재잘거리는 앵무새 무리 같았달까. 원장은 작은 건물 입구에 나를 남겨두며 떠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보통 아침 열 시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까지 고인 곁을 지키면 될 겁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종교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싶으시다고 평소 주변 분들께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일단 그렇게 준비해두긴 했지만, 혹시나 싶어 알려드립니다.” 고맙다고 했다. 엄마가 무신론자는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살아생전 신앙생활을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석회벽으로 만든 방이었다. 사방에 큰 유리창이 있었으며 무척 환했다. 의자와 엑스 자 모양 받침대가 여기저기 있었다. 중앙에는 뚜껑 덮인 관이 받침대 두 개에 의지한 채 놓였다. 덜 박혔는지,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반짝이는 못들이 호

두 색깔을 입힌 목판 따라 보였다. 관 근처에는 흰색 가운을 입고 선명한 색의 스카프를 얼굴에 두른 아랍계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수위가 내 등 뒤로 다가왔다. 뛰어난 모양이다. 수위가 약간 더듬거리며 말했다. “관 뚜껑을 닫아버렸네요. 고인 얼굴을 뵈 수 있도록 못을 빼 드리겠습니다.” 나는 관에 다가서려는 수위를 말렸다. 그가 “고인을 뵈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물었고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수위는 말없이 있었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싶어 난처했다. 이윽고 수위는 나를 바라보며 “왜요?”라고 물어봤다. 비난하려는 의도라기보단 궁금해 보였다. “잘 모르겠네요.”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수위는 하얀 수염을 이리저리 꼬며 내게서 시선을 돌린 채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멧진 하늘색 눈동자와 약간 붉은 안색의 수위였다. 앉으라고 내게 의자를 권하고는 자기도 조금 뒤에 가서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더니 출구로 향했다. 그 순간 수위가 “저 여자한테 퀘양이 났거든요.”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가 싶어 간호사를 바라봤더니 눈 아래로 머리를 감싸는 붕대가 보였다. 코가 있을 자리는 평평하기만 했다. 얼굴을 바라봐도 붕대의 하얀 빛깔만이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가 나가자 수위는 입을 열었다. “혼자 계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몸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위는 내 뒤에 서 있는 채로 남았다. 그가 내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 불편했다. 빈소는 늦은 오후의 아름다운 햇살로 가득 찼다. 말벌 두 마리가 유리창에 기대 붕붕거렸다. 이내 졸음이 내 정신을 잠식해가는 게 느껴졌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수위에게 물어봤다. “여기서 오랫동안 계셨나요?” 그는 바로 “5년 됐죠.”라고 대답했다. 마치 내가 그 질문을 묻기만을 계속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러고 나자 수위는 한참 수다를 떨었다. 아마 자기도 자신이 마랑고 양로원에서 수위로 일하며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은 몰랐겠지. 수위는 예순네 살에 파리 출신이었다. 그 말에 내가 물었다. “아, 여기 출신이 아니시네요?” 그리고 나를 원장에게 데려가기 전에 수위가 엄마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이 지역에선 평지 날씨가 워낙 더워서 빨리 엄마를 매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다 수위가 파리 시절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아직도 파리를 못 잊겠단다. 파리에선 사나흘 정도 고인 곁을 지킨다. 여기서 시간이 촉박하다. 고인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에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영구차를 뒤따라가기 바쁘다. 그러자 수위 아내가 말했다. “이제 그만 해, 아드님께 그런 소리를 해서 쓰겠어.” 부끄러웠는지 수위는 사과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수습했다. 더구나 수위 이야기가 일리 있고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작은 빈소에 같이 머물면서, 수위는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양로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알려줬다. 아직 건강하니 일이라도 거들까 해서 수위 자리를 맡게 되었다고. 결국 당신도

재원자인 셈 아니냐고 물어봤다. 수위는 그건 아니라고 답했다. 사실 수위가 다른 재원자들을 ‘그분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드물게는 ‘노인네들’이라고 불려서 이미 충격을 받던 터였다. 심지어 몇몇 재원자는 수위보다 나이가 덜 들었는데. 그런데 같은 층위에 놓고 바라볼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는 수위 자리를 맡았으니, 어떤 측면에선 다른 재원자들에 대한 권한을 가진 셈이니까.

그 순간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다. 순식간에 밤이 내려앉았다. 어둠은 빠르게 유리창 위로 쌓였다. 수위는 전등을 켰다. 갑자기 쏟아지는 불빛에 눈이 멀 정도였다. 수위는 저녁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가자고 했다. 그런데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다. 수위가 카페오레라도 한 잔 가져다주겠다고 제안했다. 마침 카페오레를 무척 좋아하기에 기꺼이 수락했다. 조금 뒤 수위는 쟁반을 들고 왔다. 나는 음료를 들이켰다. 그래선지 담배가 조금 당기더군. 하지만 엄마 앞에서 흡연해도 괜찮은지 마음에 걸려 망설였다. 고민 끝에 별 상관없겠지 싶었다. 수위한테도 담배를 권했고, 우린 같이 담배를 피웠다.

그러던 중 수위가 말했다. “어머님 친구분들도 오셔서 같이 밤을 지새우실 겁니다. 일종의 관습이죠. 의자랑 블랙커피를 좀 갖다 놔야겠어요.” 수위한테 전등을 하나 정도 꺼도 되느냐고 물어봤다. 빛 파편들이 하얀 벽면에 부딪치니 지칠 수밖에. 수위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부 끄거나 켜게끔 전기가 설계되었단다. 그 뒤론 별로 수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오가며 의자를 날랐다. 수위는 한 의자 위에 커피 주전자를 올려놓고 그 주위에 잔을 쌓았다. 그러고는 엄마를 사이에 두고 나와 마주한 자리에 앉았다. 간호사는 등을 돌린 채 구석에 있었다. 그녀가 뭘 하던 중이었는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팔 동작을 보니 뜨개질을 하나 싶었다. 포근했다. 커피 덕에 몸을 덥혔고, 열린 문으로 밤내음과 꽃향기가 스며들었다. 조금 존 것 같다.

무언가 나를 스쳐 잠에서 깬다. 자다가 눈을 떠서 그런지 방의 하얀 빛깔이 더욱 강렬해 보였다. 내 앞엔 그림자 하나 없었다. 사물들과 모서리며 곡선이 눈을 벨만큼 날카로운 윤곽을 드러냈다. 그때 엄마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열댓 명 됐는데, 눈을 멀게 하는 불빛 아래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의자를 끌지 않도록 조심하며 각자 자리에 앉았다. 나는 난생처음 사람 구경을 한다는 듯이 그들을 바라봤고, 표정과 옷차림을 세세하게 살폈다. 그런데 노인들이 너무 조용했던 탓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지경이었다. 여성들은 대부분 앞치마를 둘렀는데 허리를 졸라맨 끈이 그네들 불룩한 배를 더욱 부각했다. 나이 든 여성의 배가 저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남성들은 거의 빠짐없이 바싹 말랐고 지팡이를 짚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름 속으로 파묻힌 꺼져 가는 미광밖에 없어 놀랐다. 모두 자리에 앉았다. 대부분 이 빠진 입으로 입술을 짹 다문 채

나를 바라보고 불편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건지 경련을 일으키는 건지 헷갈렸다. 아마 인사를 했던 거겠지. 바로 그 순간 노인들이 모두 수위 주위에 앉아서 나를 마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러 여기 왔나 싶은 어처구니없는 인상마저 잠시 들었다.

얼마 후, 한 여성이 울기 시작했다. 그 여성이 둘째 줄에 앉아 앞줄 사람들에 가려진 탓에 얼굴이 잘 안 보였다. 규칙적으로 작은 탄식을 내보내며 울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은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듯이 앉아있었다. 다들 처진 채 소리 없이 침울해했다. 관이든 지팡이든, 뭐든 바라보던데, 다른 데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여성은 계속 울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서 참 놀랐다. 좀 그쳤으면 좋았으련만, 차마 그렇게는 말을 못 했지. 수위가 그 여성에게 몸을 기울여 말을 걸었으나, 여성은 고개를 저었고, 뭐라 중얼거리고는 또다시 예의 그 규칙성을 갖고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위가 내 쪽으로 오더니 가까이 앉았다. 꽤 긴 침묵 끝에 수위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입을 열어 “저분께서 어머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셨거든요. 어머님께서 유일한 친구셨는데, 이젠 아주 혼자라고 하시더군요.”라고 알려줬다.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다. 여성의 한숨과 흐느낌이 잦아들었다. 그 대신 코를 자주 훌쩍였다. 마침내 멎었다. 더는 졸리지 않았다. 그래도 피곤했고, 허리가 쭈셨다. 그때부터 노인들의 침묵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이따금 괴이한 소리가 났지만, 어디서 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알아냈다. 늙은이들 몇 명이 입안으로 볼을 빨아 대다가 놓쳐서 내뱉는 이상한 혀 차는 소리. 어쩌나 생각에 잠겨 있던지 자기들이 그런 소리를 냈다는 것조차 모르더라. 저 노인네들에겐 가운데 놓인 망인은 별 의미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랬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수위가 모두에게 커피를 대접해서 같이 마셨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잠시 눈을 떴었는데, 서로 포갠 채 잠든 늙은이들을 본 걸로 기억한다. 다만 늙은이 한 명만은 지팡이 위에 손을 얹고는, 손등에 턱을 댄 채 내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린다는 듯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던 중이었다. 나는 다시 잠들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일어나고 말았다. 유리창으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잠시 후, 늙은이 한 명이 잠에서 깨더니 거하게 기침을 했다. 체크무늬가 그려진 큰 손수건에다 가래를 뱉었는데 가래가 꽤 끓었던 모양이다. 그 늙은이가 다른 이들을 깨웠고, 수위가 이제 출발하자고 했다. 모두 일어났다. 고된 밤샘 때문에 잦은 표정들이었다. 나가면서 다들 내게 악수를 청하길래 몹시 놀랐다. 마치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지난밤이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기도 한 양.

피곤했다. 수위네 방에 잠시 들릴 수 있었던 덕분에 간단히 씻었다. 카페오레를 또 마셨다. 매우 맛있었다. 밖에 나가보니 한낮이었다. 마랑고와 바다를 갈라놓는 언덕 위로 붉은빛 감도는 하늘이 펼쳐졌다. 바람이 조금 내음을 품은 채 언덕 너머로 불어왔다. 멋진 하루가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이어서 그런지 엄마 일만 아니었어도 산책이라도 즐기며 참 유쾌했겠구나 싶었다.

대신 나는 마당에서 기다렸다. 플라타너스 아래서.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시자 졸음이 달아났다. 회사 동료들이 떠올랐다. 다들 이쯤 되면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난 항상 이 시간대가 힘들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정신이 팔렸다. 창문 너머로 소란스런 일이 벌어지나 싶더니 이내 고요해졌다. 태양이 아까보다 하늘 높이 떴다. 발밑이 뜨겁기 시작했다. 수위가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원장이 나를 찾는다고 전했다. 원장실로 갔다. 서류 몇 개에 서명해야 했다. 원장은 검은 옷에 줄무늬 바지 차림이었다. 한 손에 전화기를 든 채 나를 불렀다. “장 의사 직원들이 좀 전에 도착했습니다. 관을 완전히 담아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지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님을 뵙고 싶은지요?” 괜찮다고 했다. 원장은 수화기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일렀다. “피자크, 일에 착수하라고 전하세요.”

그러고는 자기도 장례에 참석하겠다길래 고맙다고 했다. 원장은 책상 뒤에 앉았다. 짧은 다리를 꼰 채. 원장은 자기랑 나랑 당직 간호사 셋만 갈 거라고 일러줬다. 재원자들은 장례에 참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밤만 같이 쉰 뿐이었다. “우리 나름의 인간미지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엄마의 오랜 친구 한 명한테는 장례 행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줬다. “토마 페레스 씨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며 원장은 잠시 미소 지었다. 원장은 덧붙였다. “그게 말입니다, 좀 유치한 감정의 발로지요. 페레스 씨와 어머님께선 항상 붙어 다니셨답니다. 페레스 씨께 ‘약혼이라도 하셨수?’ 하고 농담을 건네면 웃으셨죠. 두 분께선 즐거우셨나 봅니다. 그러니 페레스 씨는 어머님의 죽음에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지요. 따라오시겠다는 걸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진 의사의 당부가 있어 밤샘은 못 하시게 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원장은 일어서더니 원장실에 난 창문 밖을 바라봤다. 이내 원장은 무언가를 포착했다. “마랑고 주임신부님이 오시고 있군요. 좀 일찍 오셨네.” 원장은 마을에 있는 성당까지 걸어가는 데 적어도 45분은 걸린다고 알려줬다. 같이 아래로 내려갔다. 주임신부와 복사 두 명이 건물 앞에 도착해 있었다. 복사 한 명은 향로를 든 채로. 신부는 몸을 숙여 향로가 매달린 은사슬의 길이를 조절했다. 우리가 다가서자 신부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나더러 ‘신자님’이라고 부르더니 몇 마디 말을 건네줬다. 신부가

건물로 들어갔고, 나도 따라갔다.

빈소에 들어갔다. 관에 못을 단단히 박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다.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넷 있었다. 영구차가 도착해서 도로 위에 대기 중이라는 원장의 말과, 이제 막 시작된 신부의 기도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이때부터 모든 일이 빨리 진행됐다. 장의사 직원들이 천을 들고 관으로 다가갔다. 신부, 목사들,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엔 면식이 없는 웬 여성이 서 있었다. “되르소 씨입니다.” 원장이 나를 소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제대로 못 들었고, 단지 담당 간호사라는 말만 알아들었다. 간호사는 미소 하나 없이, 앙상하고 길쭉한 얼굴을 숙였다. 그리고 우리는 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란히 줄을 섰다. 운구 행렬을 뒤따라 양로원에서 나갔다. 문 앞에 영구차가 있었다. 기다란 모양에, 윤기가 흘러 번쩍거렸다. 필통이 연상됐다. 영구차 옆엔 호상이 있었다.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작은 남성이었다. 그리고 어색한 몰골의 늙은이도 한 명 있었다. 페레스 씨였다. 페레스 씨는 넓은 챙의 둥글고 무른 펠트 모자(관이 지나가자 벗었다), 구두에 닿아 자락이 쭈그러진 양복바지, 커다란 흰 옷깃이 달린 셔츠에 하기엔 너무 작은 검정 나비넥타이를 한 상태였다. 검은 점으로 뒤덮인 코 밑 입술이 떨렸다. 축 처진 채 기이하게 말린 귀가 가느다랗고 흰 머리털 사이로 튀어나왔다. 얼굴은 창백한데 귀만 유난히 핏빛이라서 눈에 띄었다. 호상이 각자 자리를 지정해줬다. 신부가 앞장섰고, 영구차가 뒤따랐다. 영구차 주위엔 장의사 직원 네 명이 있었다. 그 뒤론 원장이랑 나, 그리고 간호사와 페레스 씨.

하늘은 벌써 햇살로 가득했다. 햇별이 대지를 짓눌렀고, 온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왜 우리가 출발하기까지 그렇게 땀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짙은 상복 때문에 너무 더웠다. 모자를 도로 썼던 쪼그만 늙은이는 다시 모자를 벗었다. 고개를 돌려 늙은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원장이 늙은이 이야기를 했다. 저녁이 되면 엄마와 페레스 씨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마을까지 산책하셨단다. 나는 주위 시골 풍경을 둘러봤다. 하늘과 맞닿은 언덕까지 이어진 사이프러스 나무 행렬 너머로 붉고 푸른 대지와, 드문드문 자리 잡은 정갈한 집들이 펼쳐졌다. 엄마가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이 지역에선 쓸쓸한 휴식과 같은 저녁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따라 햇살이 눈앞을 아른거리게 할 정도로 넘쳐흘렀다. 덕분에 비인간적이고 침울한 풍경이 이어졌다.

드디어 출발했다. 그때야 페레스가 살짝 절뚝거린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영구차는 점점 속도를 냈고, 늙은이는 뒤처졌다. 영구차 옆에서 걸던 직원 한 명도 차를 먼저 보낸 채 나랑 나란히 걸었다. 해가 떠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놀랐다. 이미 사방은 곤충 우는 소리와 바람에 쓸리는 풀잎 소리로 가득한지 오래였다. 땀이 뺨을 타 흘렀다. 모자가 없어

손수건으로 대신 부채질했다. 그때 장의사 직원이 내게 뭐라고 말을 걸었는데 제대로 못 들었다. 그러면서 직원은 왼손에 권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댔다. 오른손으로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고. 나는 물었다. “뭐라고요?” 직원은 하늘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해가 내리쬐다고요.” 나는 답했다. “그러네요.” 잠시 후 그는 물었다. “어머님이세요?” 나는 “네.”라고 답했다. “나이가 많았나 보죠?” 나는 “그런 셈이죠.”라고 대답했다. 엄마의 정확한 연세가 기억나지 않았으니. 그리고 직원은 말이 없었다. 뒤돌아보니 페레스가 한 50미터 정도 뒤쳐진 채였다. 페레스는 모자를 앞뒤로 휘저으며 서둘렀다. 나는 원장도 바라봤다. 품위 있게 걸었다. 쓸데없는 동작 없이. 이마에 맺힌 몇 방울의 땀도 닦지 않고.

행렬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았다. 햇살을 머금은 눈부신 시골 풍경이 여전히 나를 에워쌌다. 하늘에서 터져 나오는 빛을 견디기 힘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최근 재포장된 도로로 넘어갔다. 햇빛 때문에 아스팔트가 조금 녹아 갈라 터진 터였다. 발이 살짝 박혔다. 발을 떼어낼 때면 아스팔트의 반짝이는 속살이 드러났다. 영구차 위로 솟아오른 마부의 가죽 모자는 흡사 이 검은 진흙으로 빛은 모양새였다. 새하얗고 청명한 하늘과 이 단조로운 검정 빛깔, 아스팔트의 끈적진 검정, 상복의 무미건조한 검정, 영구차의 번들거리는 검정 사이에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태양, 영구차 말뚝 냄새와 가죽 냄새, 니스 칠 냄새와 향 냄새, 하얗게 새운 밤의 피로가 눈과 머리를 어지럽혔다. 다시 뒤돌아봤다. 페레스는 저 멀리, 몰려오는 열기 한가운데 있었다.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시 주위를 살피봤더니 페레스가 도로를 벗어나 길이 나지 않은 곳으로 걷던 중이었다. 그리고 보니 도로가 앞쪽에서 굽어졌다. 이 지역에 익숙한 페레스가 행렬을 따라잡으려고 지름길을 이용하려던 것이었으리라. 페레스는 도로가 굽어지는 지점에서 다시 합류했다. 다시 뒤쳐졌다가 지름길을 이용해 따라잡길 몇 번 되풀이했다. 내 관자놀이를 때리는 피가 느껴졌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어찌나 급하고 빈틈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지 이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딱 하나, 마을 입구에서 담당 간호사가 말을 걸었다는 사실은 기억난다.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특이한 목소리였다. 감미롭지만 떨리는 목소리. 간호사가 말했다. “천천히 가면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면 땀을 많이 흘리게 돼요. 성당에서 오한이 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그날에 대한 몇 가지 잔상이 더 남아있다. 예를 들어 마을 근처에서 우리를 마침내 따라잡았을 때 페레스 얼굴. 페레스 뺨에 신경질과 고통으로 가득한 굵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런데 주름 때문에 더 아래로 흐르진 않았다. 눈물 방울은 일그러진 얼굴 사방으로 퍼졌다 모이며, 얼굴을 아예 적셔 번들거리게 했다. 그리고 성당, 보도에 서 있던 마을 주민들, 묘지의 붉은 제라늄 꽃, 페레스의 실신(무너지는 꼭두각시 같았다), 엄마 관 위에 흩뿌려지던 핏빛 흙,

거기에 섞여 들어간 뿌리의 하얀 속살, 또 사람들, 목소리, 마을,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엔진의 끝없는 잡음, 버스가 알제의 빛나는 품 안으로 들어가던 순간 이제 드러누워 내리
열두 시간은 잘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만끽한 기쁨도.

II

잠에서 깨며 왜 이틀 휴가를 달라는 말에 사장이 언짢아했는지 깨달았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그뻐 깜박했는데, 일어나며 비로소 상황 파악이 됐다. 사장 눈엔 주말까지 더하면 내가 나흘 쉬는 걸로 보였을 테고, 그게 못마땅했겠지. 뻔하다. 그렇긴 한데, 일단 엄마 장례를 오늘이 아닌 어제 치른 게 내 잘못은 아녜다. 게다가 어차피 주말은 쉬는 날이고. 어쨌거나 사장이 왜 언짢았는지는 대충 이해가 됐다.

어제의 고된 일과 탓에 일어나기가 무척 힘들었다. 면도하며 오늘 뭘 할지 생각해봤다. 해수욕이나 하러 가야지 싶었다. 트램을 타고 항구에 가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바닷물에 몸을 담갔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물속에서 마리 카르도나와 마주쳤다. 전에 같이 일했던 타이피스트였다. 당시 그녀랑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마리도 나를 좋게 봤던 것 같고. 하지만 마리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별 진척이 없었다. 마리가 튜브 위로 올라가려 하길래 도와줬다. 그 와중에 마리 가슴을 스쳤다. 나는 아직 물속에 있었다. 마리는 튜브 위에서 편하게 누운 상태였다. 마리가 몸을 틀어 나를 바라봤다. 머릿결이 그녀 눈을 살짝 가렸다. 마리는 가볍게 웃었다. 나는 튜브로 올라가 마리 옆으로 갔다. 분위기가 좋았다. 장난삼아 머리를 뒤로 젖혀 마리 배 위에 올려놨다. 별말이 없길래 그대로 있었다. 눈앞엔 금빛 감도는 푸른 하늘이 한가득 펼쳐졌다. 마리 배가 부드럽게 요동쳤다. 목덜미 아래서 느껴졌다. 튜브 위에 오래 머물렀다. 반쯤 잠든 채. 햇볕이 너무 따가워지자 마리는 물로 들어갔고, 나도 따라갔다. 마리 곁으로 갔다. 손으로 마리 허리를 감쌌고, 같이 헤엄쳤다. 마리는 계속 웃었다. 부두에서 몸을 말리던 중 마리가 말했다. “제가 피르소 씨보다 탭네요.” 마리에게 저녁에 같이 영화나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다. 마리는 웃으며 페르낭델*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도로 옷을 입었다. 내가 검정 넥타이를 한 걸 보고 마리가 놀랐다. 혹시 상 중이냐고 물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상 중이였는지 궁금해하길래 “어제부터요.”라고 대답했다.

* 프랑스 희극 배우 겸 가수였다.

살짝 당황한 모양이었지만, 별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내 잘못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하려다가 관뒀다. 그 말이라면 사장한테 한 걸로 충분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고. 어차피 살다 보면 누구나 자잘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던가.

저녁이 되자 마리는 다 잊은 듯했다. 몇 군데 웃긴 영화였지만, 솔직히 너무 유치했다. 우리 다리가 서로 맞닿았다. 나는 마리 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날 즈음 마리에게 키스했지만, 서투르게 해버렸다. 극장을 나서며 같이 내 집으로 왔다.

일어나보니 마리는 가고 없었다. 이모네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해놓은 터였다.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괜히 지루했다. 일요일이 싫다. 그래서 도로 침대에 누웠다. 마리 머릿결이 남기고 간 소금 내음을 찾아 베개에 파묻혀 열 시까지 잤다. 그러고는 누운 채 정오까지 담배 몇 개비를 피웠다. 평소엔 셀레스트네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지만, 그리고 싶지 않았다. 분명 다들 이것저것 물을 테니까. 그게 싫다. 달걀을 익혀 먹었는데, 그냥 프라이팬에다 빵도 없이 바로 먹었다. 빵이 다 떨어졌는데 사러 가기가 싫어서.

점심을 먹고 나니 조금 지루해져서 집을 휘젓고 다녔다. 엄마랑 같이 살기엔 딱 알맞은 크기였는데, 혼자 지내기엔 너무 넓어서 식탁을 내 침실 안으로 옮겨놓은 터였다. 이젠 그저 이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셈이었다. 조금 가라앉은 의자들, 누렇게 바랜 거울이 달린 옷장, 화장대, 그리고 구리 침대 사이에서.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버렸다. 조금 뒤, 뭐라도 하려고 지난 신문을 집어 읽었다. 크뤼센 소금 광고가 실렸길래 오려서 낡은 공책에 붙였다. 신문에서 웃긴 걸 발견하면 모아놓는 공책이었다. 손을 씻고 나서, 마침내 발코니 쪽으로 갔다.

방은 변두리 대로 쪽으로 나 있다. 화사한 오후였다. 그런데도 거리는 미끌미끌했고, 인적도 드물었다. 그나마 밖에 나왔던 사람들은 급해 보였다. 우선 산책 나온 가족이 있었다. 세일러복 차림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바지를 입은 소년 둘. 옷이 너무 뻣뻣한지 불편해 보였다. 그리고 커다란 분홍 리본을 달고 검정 에나멜 구두를 신은 소녀. 그 뒤론 거구의 몸에 갈색 비단 드레스를 걸친 그네들 어머니, 그리고 훌쩍하고 키 작은 아버지. 남성은 낮이 익었다. 그는 밀짚모자에 나비넥타이를 갖추곤 손에 지팡이를 쥐었다. 아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왜 동네 사람들이 그더러 고상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얼마 후 동네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기름 바른 머리에 빨간 넥타이, 장식용 손수건이 달린 짝 붙는 재킷에 각진 구두. 시내 극장에라도 가는 모양이네. 그래서 다들 웃고 떠들며 이렇게 일찍부터 서둘러 트램으로 내달리겠지.

젊은이들이 가고 나자 길은 점차 한산해졌다. 여기저기서 공연이 시작한 모양이다. 길

거리엔 장사치들과 고양이들뿐이었다. 길가 따라 심은 무화과나무 위로는 맑지만 눈부시진 않은 하늘이 놓였다. 맞은편 인도에선 담배 가게 주인이 의자를 꺼내 들었다. 문 앞에 내려놓더니 양팔을 등받이에 기대곤 거꾸로 걸터앉았다. 조금 전만 해도 미어터지던 트램들이 어느새 거의 비었다. 담배 가게 옆에 있는 작은 카페 ‘피에로네’ 종업원이 텅 빈 홀을 청소 중이었다. 정말 일요일이었다.

나는 담배 가게 주인처럼 의자를 돌려 앉았다. 더 편해 보여서. 담배 두 개비를 피우고 방에 들어가 초콜릿 조각을 집어 들고 창가로 돌아가 먹었다. 잠시 뒤 하늘이 어두워지길래 여름 소나기라도 내릴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차차 맑아졌다. 구름이 지나간 거리는 아까보다 어두워 보였다. 비가 오리라는 증표 같았다. 오래도록 하늘을 구경했다.

다섯 시가 되자 소음을 몰며 트램들이 도착했다. 교외 경기장에서 돌아오는 관중들이 발판과 난간에 웅기종기 매달려 있었다. 이어서 선수들이 트램을 타고 왔다. 선수들이 든 운동가방 덕분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자기네는 불멸의 팀이라며 합성을 질렀다. 목이 터져라 노래했다. 선수 여럿이 내게 손을 흔들었다. 한 명은 “우리가 이겼어!”라고 외쳤다. 나는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부터 차량이 몰려왔다.

하루가 조금 더 지나갔다. 지붕 위 하늘이 불그스름하게 물들었고, 밤의 태동이 시작됐다. 거리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산책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좁전의 그 고상한 아저씨도 사이에 끼어 있었다. 아이들은 울어댔다. 아니면 그저 끌려다니거나. 거의 동시에 동네 극장에서 관객들이 쏟아져 나왔다. 젊은이들은 평소보다 흥분 상태였다. 모험 영화라도 봤나 보네. 시내 극장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더 늦게 도착했다. 심각한 표정들이었다. 더러 웃기도 했지만 주로 지치고 생각에 잠겨 보였다. 맞은편 인도를 오가며 서성거렸다. 동네 젊은 여성들이 머릿결 흔들며 서로 팔짱을 끼고 지나갔다. 젊은 남성들은 일부러 여성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농담을 던져댔다. 여성들은 고개 돌리며 웃었다. 나와 면식이 있는 몇몇은 내게 손을 흔들어 줬다.

순간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 밤하늘에 박히기 시작한 첫 별들이 희미해졌다. 인파와 불빛으로 가득한 인도를 보고 있자니 눈이 지쳤다. 젖은 거리는 가로등 불빛을 머금어 반짝거렸다.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는 트램 전등은 빛나는 머릿결을 비쳤다. 미소와 은팔찌도. 시간이 지나자 트램은 뜸해졌고 밤은 나무와 가로등 위로 어둠을 몰고 왔다. 거리를 채우던 인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침내 고양이가 텅 빈 거리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저녁이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자 등받이에 턱을 괴고 오랫동안 앉아 있더니 목이 조금 빠근했다. 내려가서 빵과 파스타를 좀 사왔다. 저녁거리를 만들어 그냥 서서 먹었다.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밤공기에 조금 추웠다. 창문을 닫고 돌아오며

거울을 통해 알코올램프와 빵조각이 놓인 식탁 모퉁이를 봤다. 참 길게 늘어진 일요일 하루였구나. 이제 엄마 장례도 끝났고,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셈이네.

III

오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사장은 친절했다. 피곤하진 않은지 물어봐 줬고 엄마 연세를 물었다. 나는 괜히 잘못 말하지 않으려고 “예순 정도 되셨죠.”라고 답했다. 웬지 모르겠지만 사장은 부담을 던 느낌이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여겼나 보다.

책상 위엔 선하증권 한 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죄다 검토해야 했다.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손을 씻었다. 정오의 이 순간이 참 좋다. 저녁땀 손 씻는 맛이 덜하다. 공용 수건이 눅눅해진 탓이다. 사람들이 온종일 사용해왔으니. 이 문제를 사장한테 지적한 적도 있다. 안타깝지만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으냐고 하더라. 발송팀에서 일하는 에마누엘과 열두 시 반쯤 나갔다. 조금 늦게 나가는 셈이었다. 사무실에서 바다가 보인다. 에마누엘과 태양 아래 이글거리는 항구에 있는 화물선들을 바라보느라 잠시 넋이 나갔다. 그때 체인 끌리는 소리와 과열음을 내며 트럭이 도착했다. 에마누엘이 “저거 탈까?”라고 물었고, 나는 뛰기 시작했다. 트럭이 우리를 추월했다. 힘껏 쫓아갔다. 소음과 먼지 가운데서 헤엄치는 기분으로. 아무것도 안 보였다. 윈치, 기계, 수평선에서 춤추는 돛대, 죽 늘어선 선체들 사이 추격전이 안겨주는 무질서한 걱정만을 만끽했다. 내가 먼저 뛰어올라 트럭에 탔다. 그리고 에마누엘이 타도록 도왔다. 우리는 마구 혈떡거렸다. 트럭은 먼지와 햇살을 가로지르며 부듯가의 울퉁불퉁한 도로 위에서 흔들렸다. 에마누엘은 숨이 차도록 웃어댔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셀레스트네 식당에 도착했다. 언제나 불룩한 배에, 앞치마를 한 흰 수염의 셀레스트. 그는 “그래도 버틸만해?”라고 물어봤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배가 고프다고 덧붙였다. 밥을 허겁지겁 먹고 커피를 마셨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집에 가서 좀 잤다. 눈을 뜨니까 담배가 당겼다. 지각할 것 같아 트램을 잡으려 뛰어갔다. 오후 내내 일했다. 사무실은 몹시 더웠다. 저녁 무렵에 퇴근했다. 부두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귀가할 수 있어 기뻐다. 초록빛 하늘 아래, 기분이 펴 좋았다. 그래도 삶은 감자를 해먹고 싶어 곧장 집으로 갔다.

킁킁한 계단을 오르며 같은 층에 사는 살라마노라는 노인네와 마주쳤다. 살라미노는 개랑 같이 있었다. 8년째 키우는 스페니얼 개였다. 개가 피부병에 걸린 모양이었다. 아마도 습진. 털이 거진 빠졌고 반점과 흑갈색 딱지로 뒤덮였다. 좁은 방에서 둘이서만 지내다 보니까 노인네가 자기 개를 닮고야 말았다. 얼굴에 검붉은 딱지가 내려앉았고 누런 털 몇 개만 빠죽 났다. 개도 자기 주인의 구부정한 자세를 물려받았다. 쪽 뺨은 목에 튀어나온 주둥이. 실상 같은 종이나 다름없었지만 서로를 미워했다. 노인네는 하루에 두 번 개를 산책시킨다. 열한 시하고 여섯 시에. 8년 동안 같은 길만 산책했다. 리옹 가에 가면 이 둘을 볼 수 있다. 개가 노인네를 끌어당긴다. 살라마노가 발을 헛디딜 지경으로. 그럼 노인네는 개를 때면서 욕을 퍼붓는다. 개는 겁에 질린 채 끌려다닌다. 이제 노인네가 끌고 갈 차례지. 개가 깜박하고 다시 자기 주인을 끌고 다니면, 또 얻어맞고 욕설에 시달린다. 그러고 나면 둘은 인도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개는 겁에 질려, 노인네는 증오를 품고. 맨날 그런다. 개가 오줌을 누려고 해도 노인네는 기다려주지 않고 개 줄을 당겨댄다. 개는 오줌을 푹푹 흘리며 끌려간다. 혹여나 방에다 용변을 보는 날이면 또 얻어맞는다. 8년째 이 모양이다. 셀레스트는 항상 ‘가엽다’고 하지만, 솔직히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살라마노는 개에게 욕을 퍼붓는 중이었다. 노인네는 “개새끼! 망할 놈!”이라고 소리쳤고 개는 끽끽거렸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으나 노인네는 계속 욕을 퍼부었다. 그래서 개가 뭘 짓을 했길래 그러느냐고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그저 “개새끼! 망할 놈!”이라고 소리칠 뿐. 개 위로 몸을 숙인 채 개 목 끈을 매만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더 크게 노인네를 불렀다. 그러자 노인네는 돌아보지 않은 채 화를 억누른 듯한 목소리로 “똥짝을 앓는구먼.”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개를 끌고 돌아갔다. 개는 끽끽대며 질질 끌려갔다.

바로 그 순간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이웃이 들어왔다. 여성들을 등쳐 먹고산다고 소문이나 있는 사람이다. 자진 자신을 ‘창고지기’라고 소개하지만. 대체로 그를 싫어한다. 그런데 그는 나한테 종종 말을 걸고, 어찌다가 내 방에 들르기도 한다. 내가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듣다 보면 나름 재미있다. 더구나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을 까닭이 전혀 없지 않은가. 이름은 레몽 생테스. 비교적 작은 키에 넓은 어깨, 약간 뭉개진 코. 늘 옷을 갖춰 입는다. 생테스도 살라미노 이야기를 하면서 “거 참 복도 지지리 없지!”라고 말했다. 지켜보노라면 역겹지 않으냐고 묻기에 그렇진 않다고 대답했다.

생테스랑 계단을 올라갔다. 헤어지려던 참에 그가 말했다. “집에 순대랑 술이 좀 있는데, 같이 먹다 갈래요?” 그럼 저녁을 준비할 수고를 덜 수 있겠구나 싶어 좋다고 했다. 생테스도 창문 없는 부엌이 딸린 방 한 칸짜리 집에 산다. 침대 쪽에는 하얀색과 분홍색 천

사 석고상과 운동선수 사진 몇 장, 여성 나체 사진 두어 장이 있다. 방은 더러웠고 침대는 엉망이었다. 생테스는 먼저 석유 램프를 켜다. 주머니에서 지저분한 봉대를 꺼내더니 오른손에 감기 시작했다. 나는 뭐 일 있느냐고 물었다. 웬 녀석이 시비를 걸어 한바탕 싸웠단다.

“그게 말입니다.” 생테스가 말했다. “내가 못된 놈은 아닌데요, 좀 욱하는 편이거든요. 그 녀석이 나한테 ‘사나이라면 트램에서 내려!’라길래 ‘진정하시지그래?’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나더러 겁쟁이랍니다. 그래서 내려서 말했죠. ‘이제 그만 하시지? 안 그럼 본때를 보여줄 테니.’ 녀석이 ‘네까짓 게?’라고 하길래 한 대 갈겼습니다. 나가 자빠졌죠. 일으켜 세우려니까 놈이 자빠진 채로 발길질하더라고요. 그래 무릎으로 한 대 찍어주고 주먹 두 방을 먹었죠. 피투성이가 되었던답니다. 이제 됐냐고 물어보니까 녀석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내내 생테스는 봉대를 매만졌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였다. 생테스는 이어 말했다. “보다시피 내가 시비 건 게 아닙니다. 그놈이 까분 거지.” 맞는 말이어서 동의해줬다. 그러자 생테스가 이 사건 때문에 마침 조언을 좀 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나는 남자답고, 세상일도 잘 알고, 자기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내 친구가 돼주겠다. 말없이 있자 자기랑 친구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상관없다고 했다. 만족해 보였다. 순대를 꺼내더니 프라이팬에 구웠다. 잔, 접시, 식기, 술 두 병을 말없이 내놓았다. 우리는 자리를 잡았다. 음식을 먹으며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금 망설였다.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내 정부랄까.” 한바탕 했던 남성은 바로 이 여성의 형제였다. 자기가 정부를 먹여 살렸단다.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갑자기 덧붙였다. 자기가 어떻게 소문나 있는지 알지만 자긴 떳떳하다고, 창고지기라고.

“하던 애기나 계속 하자면, 그 여자가 날 속였던 겁니다.” 레몽은 정부한테 딱 먹고살 만큼만 돈을 줬다. 방세랑 하루 식비 20프랑. “방세 300프랑이랑 식비 600프랑에다가 스타킹 같은 걸 사주기도 했죠. 다 하면 1,000프랑은 되네. 그런데 우리 마님께선 일을 안 하셨지. 그러면서도 그 돈으론 빠듯하다면서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더라니까요? 난 말했죠. ‘만나절이라도 일하지그래? 그럼 내 짐도 좀 덜 텐데. 봐, 요번 달에 옷 한 벌 해줬지, 매일 20프랑씩 주지, 방세 내주지. 근데 넌 친구들이랑 카페나 다니지? 네가 계산을 다 한다며. 그게 누구 돈인데? 너한테 잘 해주면 뭐해, 하고 다니는 게 그 모양인데.’ 그런데도 일을 안 하더라구요. 계속 빠듯하단 말만 하고. 그때 알아챈 겁니다. 이 년이 날 속여먹고 있구나.”

레몽은 정부 핸드백에서 복권 한 장을 발견했다고 말해줬다. 그녀는 무슨 돈으로 복권을 샀는지 해명하지 못했다. 얼마 후엔 정부가 팔찌 두 개를 전당포에 잡혔단 걸 증명하

는 전표를 그녀 집에서 발견했다. 그런 팔찌가 있는 줄도 몰랐단다. “그때 내가 속고 있던 걸 확실히 안 겁니다. 그래서 그녀이랑 관계를 끊었죠. 아, 그 전에 몇 대 좀 패웠습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일러줬지요. 네년이 바라는 건 난잡한 재미나 보는 거뿐이지 않냐고. ‘아주 복에 겨워서 내가 뭘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 두고 보라고, 곧 깨닫게 될 테니까.’라고 쏘아줬죠.”

레몽은 피가 날 때까지 여성을 때렸다. 예전엔 때린 적이 없었다는데. “그게, 전에도 손찌검은 했는데 그건 뭐 때린 것도 아녘지. 그녀이 소릴 질러대면 내가 걸창을 단았고, 그렇게 늘 끝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엔 그냥 못 지나갑니다. 아직 벌을 덜 졌어요.”

바로 이 문제로 조언이 필요하단 거였다. 레몽은 그슬리는 램프 심지를 바로잡느라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계속 듣는 중이었다. 술을 꽤 마셔 관자놀이가 달아올랐다. 담배가 떨어져 레몽한테 얻어 피웠다. 밖에선 마지막 트램들이 동네 소음을 저 멀리 실어가며 지나갔다. 레몽이 말을 이었다. ‘그 여자와의 잠자리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벌을 주고 싶다. 처음엔 정부를 호텔로 데려간 다음에 그녀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경찰에 신고해 난리를 피워 빨간 줄을 그어버릴까 생각했단다. 그리고 뒷골목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봤다. 별 소득은 없었지만. 이런 것 하나 해결 못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 소리 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정부한테 ‘낙인’을 찍으라고 제안했다. 그건 바라지 않는 모양이었다. 좀 더 고민해본다나. 일단 나한테 뭘 좀 묻고자 했다. 그 전에 이 사건이 언제 보이는지 알고 싶어 했다. 별생각은 없지만 흥미롭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자길 속였다고 생각하는지 묻길래 그렇다고 말했다. 그녀를 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내가 자기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그야 알 수 없지만 왜 벌하려는지 알겠다고 말했다. 나는 술을 좀 더 마셨다. 레몽은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편지를 보내려고 했다. ‘저주를 퍼붓지만 그러면서도 뉘우치게 하는 그런 편지.’ 정부가 돌아오면 같이 잔 다음 ‘절정에 이르려는 순간’ 얼굴에 침을 뱉고 쫓아내는 계획이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벌 받는 셈이라고 인정해줬다. 그런데 레몽은 편지를 쓸 자신이 없다며 나한테 자기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자 지금 당장 쓰긴 어려운지 물었다. 그렇진 않다고 대답했다.

레몽은 한잔 하더니 일어났다. 접시들을 한쪽으로 치웠다. 먹다 남아 식어버린 순대도. 비닐 식탁보를 정성스레 닦았다. 침대 머리맡 탁자 서랍을 열더니 모눈종이, 노란 편지 봉투, 작고 붉은 나무 펜대, 보라색 잉크를 담은 네모난 잉크병을 꺼냈다. 내게 수취인 이름을 말해줬다. 무어 여성이었다. 편지를 썼다. 손이 가는 대로 썼는데, 이왕이면 레몽 마음에 들도록 썼다. 그래서 나쁠 건 없지 않나. 다 쓰고 소리를 내 편지를 읽었다. 레몽은

담배를 문 채 고개 끄덕이며 들었다. 한 번 더 읽어달란다. 아주 흡족해 보였다. 레몽이 말했다. “역시 넌 세상사는 법을 아는구나.” 나한테 말을 놓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진 못했다. “야, 우린 이제 진짜 친구야.” 그래, 그제야 레몽이 말을 놓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지. 레몽은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나는 대답했다. 친구든 말든 별 상관없었다. 레몽은 정말 친구가 되고 싶었나 보다. 편지를 봉했다. 우리는 술을 마저 비웠다. 그리고 말 없이 잠시 담배를 태웠다. 밖은 고요했다. 지나가던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늦었네.”라고 말했다. 레몽도 늦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참 금방 간단다. 어떤 의미에선 맞는 말이지. 즐렸지만 일어서기가 괴로웠다. 피곤이 내 얼굴 가득 서렸나 보다. 레몽이 나더러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한다고 말한 걸 보니. 처음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레몽은 엄마가 돌아가셨단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언젠간 일어날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내 생각도 그랬다.

나는 일어섰다. 레몽은 남자들끼린 다 통하는 법이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집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서서 밤 안에 잠시 머물렀다. 건물은 고요했다. 어둡고 습한 숨결이 계단 저 아래서 올라왔다. 피가 뛰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다. 가만히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살라마노 방에서 개가 둔탁한 신음을 내질렀다.

IV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다. 레몽이 집에 들러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줬다. 에마누엘과 극장에 두 번 갔다. 에마누엘은 종종 영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옆에서 설명해줘야 한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다. 약속한 대로 마리가 집에 왔다. 빨간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그려진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가죽 샌들을 신었다. 눈을 떼기 힘들었다. 머리 옷 아래 봉긋한 가슴이 느껴졌다. 햇볕에 그을린 갈색 얼굴은 화사하게 피어났다. 같이 버스를 타서 알제에서 조금 떨어진 해변으로 갔다. 육지 따라 자라난 갈대와 암벽 사이에 자리 잡은 해변. 네 시의 태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지만 바닷물은 따뜻했다. 기다란 잔파도가 나른하게 찰랑거렸다. 마리가 놀이를 하나 알려줬다. 헤엄치며 하얀 파도를 들이마셔 입안 가득 거품을 담아 하늘 향해 드러누운 채 뿜어대기. 그럼 거품 레이스가 공중으로 사라지거나 미지근한 비가 되어 얼굴로 떨어졌다. 몇 번 하고 나니까 소금기에 입이 타올랐다. 그러자 마리가 물속에서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내게 입을 갖다 포갠다. 달콤한 혀가 입술을 달래줬다. 파도 가운데서 한동안 뒹굴었다.

해변에서 옷을 입는데 마리가 빛나는 눈으로 바라봤다. 마리를 껴안았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있었다. 서로 껴안은 채 귀가 버스를 잡기 위해 서둘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같이 침대로 달려들었다. 창문을 열어두었다. 햇볕에 그을린 몸 위로 흐르는 여름밤이 느껴져 기분이 좋았다.

마리는 오늘 아침까지 남았다. 나는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다. 혼자 고기를 사러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길에 레몽 방에서 여성 목소리를 들었다. 조금 뒤 살라마노가 개를 혼냈다. 우리는 나무 계단을 내려가는 구두창 소리와 발톱 소리를 들었다. “개새끼! 망할 놈!” 들은 밖으로 나갔다. 저 노인네 이야기를 해주니 마리가 웃었다. 내 잠옷 소매를 걷어 올려 입은 채. 웃는 모습을 보니 또 하고 싶었다. 잠시 후 마리는 자기를 사랑하는지 물어봤다. 나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마리는 슬퍼 보였다. 그런데 점심을 준비하며 마리가 별 이유 없이 환하게 웃어서 껴안아줬다. 그 순간 레몽 방에

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났다.

먼저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레몽 말소리가 들려왔다. “네까짓 게 날 갖고 놀아? 오냐, 날 갖고 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둔탁한 소리가 수차례 났고 여성이 비명을 질렀다. 어찌나 끔찍한 비명이었는지 건물 주민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우리도 방에서 나왔다. 여성은 여전히 비명을 질렀고, 레몽은 여전히 때렸다. 마리는 너무 끔찍하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마리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싫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마침 경찰이 3층에 세든 배관공과 함께 도착했다. 경찰이 문을 두들겼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더 세계 두들겼다. 이내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고 레몽은 문을 열었다. 담배를 물고 애써 미소 짓고 있었다. 여성은 바로 방에서 달려나가 경찰에게 레몽이 자기를 때렸다고 일렀다. “이름 대.” 경찰이 말했다. 레몽은 대답했다. 경찰이 경고했다. “대답할 땐 입에서 담배를 빼.” 레몽은 망설였다. 나를 보더니 담배를 빨아들였다. 그순간 경찰이 레몽한테 힘껏 두툼고 육중한 따귀를 날렸다. 뿔 한가운데에. 담배는 몇 미터 날아가 떨어졌다. 레몽 낮빛이 변했다. 아무 말 없다가 콩초를 주워도 될지 공손하게 물어봤다. 경찰은 그러라면서 덧붙였다. “다음부터 경찰을 우습게 보기만 해봐.” 그러는 사이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놈이 날 때렸어요. 포주예요!” 레몽이 끼어들었다. “경찰관님, 남자한테 포주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법에서 그래도 된다고 합니까?” 경찰은 “입 닥쳐.”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레몽이 여성에게 말했다. “두고 보자고, 응? 각오해둬.” 경찰이 닥치라고 말했다. 여성은 가봐도 좋지만 레몽은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까지 방 안에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별별 떨고 있느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덧붙였다. 레몽이 해명했다.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그게, 경찰관님께서 앞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떠는 겁니다.” 레몽은 문을 닫고 들어갔다. 나머지 사람들도. 마리와 점심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마리가 별로 식욕이 없어 내가 거의 다 먹었다. 한시가 되자 마리는 떠났고, 나는 잠시 눈을 붙였다.

세 시쯤 노크 소리가 났다. 레몽이 들어왔다. 나는 계속 누워 있었다. 레몽은 침대 끄트머리에 앉았다. 한동안 말없이 있길래 일은 잘 해결했는지 물어봤다. 계획대로 돌아갔지만 여성이 따귀를 때려서 패버렸단다. 나머지는 본 대로라고. 이제 충분히 벌을 준 셈이니 만족스럽겠다고 말했다. 레몽도 만족한다고 했다. 경찰이고 나발이고 이미 때릴 건 다 때렸으니. 자기가 경찰들 사정엔 흰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경찰이 때렸을 때 자기가 응수하길 기대했는지 물었다. 그러진 않았고, 어차피 경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레몽은 같이 외출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일어나서 머리를 빗었다. 나더러 참고인 진술을 좀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야 상관없지만 뭐라고 진술해야 하는지 몰랐다. 레몽에 따르면 그냥 그 여성이 자기를 속여먹었다고 진술하면 됐다. 참고인 진술을 하기로 승낙했다.

밖으로 나갔다. 레몽이 코냑을 한 잔 사줬다. 그리고 당구를 쳤는데 내가 간발의 차이로 졌다. 레몽은 성매매 업소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건 거절했다.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천천히 귀가했다. 레몽은 정부를 성공적으로 별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했다. 나를 정말 잘 대해줬다. 참 즐거웠지.

멀리서 살라마노가 보였다. 노인네는 문간에 서 있었는데 불안한 기색이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개가 어딜 가고 없었다. 노인네는 사방을 살피며 제자리를 맴돌았다. 어두운 복도를 뚫어져라 바라보는가 하면 두서없이 증얼거렸고, 핏발 선 작은 눈으로 거리를 뒤졌다. 레몽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들릴 듯 말 듯 “개새끼, 망할 놈”이라고 속삭였다. 그러곤 또 안절부절못했다. 나는 개가 어딴는지 물었다. 살라마노는 도망갔다고 툭 뱉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쏟아냈다. “평소처럼 마뇌브르 광장*에 데려갔어요. 축제 중이어서 사람이 많았죠. ‘탈출왕’을 구경하러 멈춰 섰답니다. 그런데 떠날 때가 되니 개가 사라졌지 뭐니까! 아, 진짜 더 작은 목 끈을 사줄 걸 그랬어요. 이 망할 놈이 이렇게 도망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레몽은 개가 길을 잃은 걸 수도 있다며, 돌아올 거라고 달랬다. 주인을 찾아 십여 킬로미터나 되돌아온 개들 사례를 열거했다. 그럼에도 노인네는 더욱 불안해했다. “녀석을 뺏기고 말 거예요. 누가 거두어 주기라도 한다면... 아,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딱지투성이를 누가 반겨 준다고. 경찰들이 잡아갈 겁니다. 틀림없어요.” 나는 동물 보호소에 가보라고 말했다. 요금을 얼마간 내면 돌려줄 거리고. 노인네는 요금이 많이 나올지 물어봤다. 나도 잘 몰랐다. 그러자 노인네는 화를 냈다. “그 망할 놈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니. 나 참! 그냥 똥지라지!” 그리고 욕지거리를 시작했다. 레몽은 웃으며 건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갔다. 위층 복도에 이르러 헤어졌다. 잠시 후 노인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노인네는 문턱에 선 채 가만히 있더니 입을 열었다. “실례합니다만, 잠깐 시간이 되시나요?” 들어오라고 했으나 거절했다. 노인네는 자기 신발 끝에 시선을 고정했다. 딱지 앓은 손을 떨었다. 나를 바라보지 않은 채 물었다. “녀석을 뺏기지 않겠죠? 그렇죠, 피르소 씨? 돌려 보내주겠죠? 아, 녀석 없이 어떻게 살아간담...” 보호소는 3일간 개를 데리고 있고, 그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말해줬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럼 이만.”이라며 돌아갔다. 노인네가 문을 닫고 방을 서성이는 소리

* 알제에 위치한 광장으로, 살라마노가 개를 산책시키던 리옹 가와 접해 있다. 오늘날 ‘5월 1일 광장’으로 불린다.

가 들렸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이상하고 작은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울고 있구나. 웬지 엄마가 생각났다. 하지만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 했다. 배가 고프지 않아 저녁을 거른 채 잠을 청했다.

레몽이 회사로 전화했다. 자기 친구가 알제 인근 작은 별장에서 같이 일요일을 보내자고 나를 초대했다(친구한테 내 이야기를 해줬단다). 그러고 싶지만 그날 친구인 다른 여성과 선약이 있다고 대답했다. 레몽은 그 여성도 초대하겠다고 바로 덧붙였다. 자기 친구 부인이 아주 좋아할 거란다. 남정네들 사이에 혼자 있지 않아도 돼서.

나는 바로 끊으려고 했다. 사장이 밖에서 걸려온 전화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니깐. 그런데 레몽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다. 초대 건이야 저녁때 전해줄 수도 있었지만 달리 알려줄 게 있단다. 아랍인 무리가 레몽을 종일 따라다녔다. 그중 옛 정부의 형제도 있었다. “저녁 퇴근길에 녀석이 집 근처에 있는 걸 발견하면 좀 알려 줘.” 그러겠다고 말했다.

잠시 후 사장이 나를 불러서 순간 난처했다. 덜 통화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할까 봐.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아직은 좀 막연한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내 의견을 묻고 싶다고. 파리에 지점을 하나 개설해서 대기업들과 현지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생각이었다. 내가 파리에 가서 일해볼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럼 파리 생활도 해볼 수 있고 연중 일정 기간은 여행도 다닐 수 있다며. “되르소 씨는 젊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나쁠 건 없지만 나야 이러나저러나 상관없다고 했다. 사장은 삶에 한 번 변화를 취보는 것에 관심 없느냐고 물어봤다. 사람은 결코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대답했다. 결국 어떤 삶의 방식이 더 좋거나 나쁘다곤 할 수 없고, 여기서의 내 삶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 언짢아 보였다. 나더러 항상 동문서답을 한다며, 야망이 없어 사업을 그르칠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다시 일하러 갔다. 언짢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내 삶을 바꿀 이유는 없지 않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학창 시절엔 그런 식의 야망을 많이 품었다. 하지만 학업을 포기해야 됐고, 그 모든 일이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다.

저녁에 마리가 나를 찾아와서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지 물어봤다. 나는 결혼하든 말든

상관없고, 원한다면 결혼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자기를 사랑하는지 물었다. 지난번처럼 대답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사랑하는 것 같진 않다고. “그럼 뭐하러 나랑 결혼해?” 그녀가 물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정 바란다면 결혼하면 된다고 설명해줬다. 더구나 결혼을 요구한 건 마리였고, 나는 그저 좋다고 했을 뿐이다. 마리는 결혼은 중요한 문제라고 따졌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야.” 마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만약 다른 여성이 나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결혼하자고 했어도 승낙했을 거냐고. 단지 그걸 알고 싶다고. 나는 “당연하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리는 과연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지 자문했다. 나와 전혀 알 수 없지. 또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다. 마리는 속삭이듯 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아마 그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만 바로 같은 이유로 내게 싫증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면. 나는 덧붙일 말이 없어 조용히 있었다. 그러자 마리는 웃으며 내 팔을 잡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바로 결혼하겠고 대답했다. 그리고 사장이 한 제안을 이야기해줬다. 마리는 파리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한때 파리 생활을 했다고 알려줬다. 마리는 파리가 어떤지 물어봤다. “더러워. 비둘기가 많고 마당은 시커메. 사람들 살갓은 하얗고.”

그리고 같이 대로를 따라 시내를 돌아다녔다. 여성들이 꽤 예뻐다. 마리한테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다. 마리는 그렇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래도 마리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셀레스트네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마리는 그러고 싶지만 달리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내 집에 다다라 마리한테 잘 들어가고 했다. 마리는 나를 바라보며 물어봤다. “내가 할 일이 뭔지 안 궁금해?” 궁금하긴 했지만 딱히 물어볼 생각을 하진 않았지. 마리는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내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자 마리는 또 웃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온몸으로 기대더니 입술을 포갰다.

셀레스트네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미 먹기 시작했는데 이상해 보이는 작은 여성이 들어오더니 나랑 합석해도 될지 물어봤다. 당연히 된다고 했다. 동작은 경직됐고, 사과 모양 작은 얼굴에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고 앉아 메뉴를 훑어져라 살폈다. 여성은 셀레스트를 불러 곧바로 또렷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요리들을 주문했다. 전채요리가 나오길 기다리며 가방을 열더니 작은 메모지와 연필을 꺼내 미리 밥값을 계산했다.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밥값에 팁을 더한 만큼의 돈을 정확히 꺼내 자기 앞에 놓았다. 그 순간 전채요리가 나왔다. 여성은 최대한 빨리 집어삼켰다. 다음 요리가 나오길 기다리며 또 가방에서 파란색 연필과 일주일치 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잡지를 꺼냈다. 정성을 다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체크하더라. 열두어 페이지 정도 되는 잡지여서 식사 내내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체크했다. 내가 식사를 마쳤을 때도 여성은 계

속 그러는 중이었다. 그러더니 여성은 일어나 아까의 자동인형 같은 정확한 동작으로 재킷을 도로 입고선 나갔다. 마침 딱히 할 일이 없어 식당을 나가 여성을 따라갔다. 여성은 놀랍도록 빠르고 확고한 걸음으로 보도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방향을 틀지도, 뒤돌아 보지도 않고. 여성을 시야에서 놓쳐 그만 내 갈 길을 갔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잊어버렸다.

내 방문 앞에서 살라미노와 마주쳤다. 같이 방안으로 들어갔다. 노인네는 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알려줬다. 동물 보호소에 가봤는데 없었던단다. 보호소 직원들은 개가 차에 치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줬다. 노인네는 경찰서에 가면 정말 차에 치였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직원들한테 물었다. 워낙 흔한 일이라 따로 기록해두지 않는다고 대답해준 모양이다. 나는 노인네한테 다른 개를 기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인네는 종전 개한테 이미 정이 들었다고 대답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

나는 침대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살라마노는 식탁 옆 의자에 앉았다. 노인네는 나와 마주 봤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다. 낡은 펠트 모자 차림이었다. 누런 수염 아래로 말끝을 흐리며 중얼거렸다. 같이 있기 귀찮았지만 딱히 할 일도 없고 잠도 안 왔다. 나는 뭐라 말이라도 붙이려고 개에 관해 물었다. 아내가 죽은 뒤 기르게 됐다고 한다. 늦게 결혼한 편이었다. 젊었을 땐 연극을 하고 싶었던단다. 군 시절 군내 보드빌에서 연기하곤 했다. 그런데 결국 철도청에서 근무하게 됐다. 후회는 없다고 한다. 덕분에 소정의 연금을 받게 됐으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나름 거기에 익숙해진 터였다. 아내가 죽고 나자 무척 외로웠단다. 그래서 회사 동료한테 개 한 마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질병을 물려가며 키웠단다. 그런데 개 수명이 사람보다 짧다 보니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 녀석, 성질이 고약했죠. 가끔 심하게 다룰 때도 있었고요. 그래도 참 좋은 개였답니다.” 살라마노가 말했다. 개가 좋은 품종이었다고 말해주니까 살라마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요, 녀석이 병들이 전 모습을 보셨어야 해요. 털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개가 피부병에 걸리고 나서부터 살라마노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개한테 연고를 발라줬다. 그런데 살라마노가 보기에 개의 진짜 병명은 노화였다. 그리고 노화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 순간 나는 하품했다. 노인네는 곧 가겠다고 말했다. 좀 더 있어도 된다고, 개 때문에 참 속상하다고 대답했다. 노인네는 고마워했다. 엄마가 자기 개를 많이 아껴줬단다. 노인네는 엄마를 언급할 때면 ‘참 딱하시지’라고 덧붙였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마음이 심히 안 좋으시겠군요.”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러자 노인네는 내가 엄마를 양로원으로 보내서 동네에서 나를 안 좋게 본다는 건 알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엄마를

무척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다급히 말했다. 난처해 보였다. 나는 그런 일로 내가 비난받았단 걸 여태 몰랐다고 대답했다. 엄마를 돌봐줄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 양로원에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또 덧붙였다. “게다가 예전부터 제게 말도 별로 안 거셨습니다. 그저 혼자 따분해하셨죠.” 노인네가 말했다. “그럼요. 양로원에선 친구를 둘 수도 있고요.” 그러고는 이만 일어나겠다고 하며, 자리 간다고 했다. 이젠 자기 삶이 변해 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노인네는 난생처음으로 내게 슬그머니 악수를 청했다. 까칠한 피부가 느껴졌다. 노인네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나가기 전에 말했다. “오늘 밤엔 개들이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녀석일 것만 같거든요.”

VI

일요일,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마리가 와서 나를 부르며 흔들어 깨워야 했다. 우리는 일찍부터 해수욕을 하려고 아침을 걸렀다. 나는 완전 진이 빠졌고 머리가 살짝 아팠다. 담배마저 썼다. 마리는 내가 ‘초상난 얼굴’이라며 놀려댔다. 흰 천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는 늘어뜨렸다. 정말 예쁘다고 말해줬다. 마리는 기분이 좋아 웃었다.

내려가며 레몽 방문에 노크했다. 곧 내려간단다. 거리로 나왔다. 피곤하기도 했고 방에서 걸창을 단아놓았던 터라 벌써부터 한가득 내리치는 햇빛이 따귀처럼 느껴졌다. 마리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며 계속 날씨가 좋다고 했다. 나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고,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마리한테 그렇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영복과 수건만 든 비닐 가방을 보여줬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레몽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푸른 바지에 하얀 반팔 셔츠 차림이었다. 하필 밀짚모자를 써서 마리가 웃었다. 레몽 팔뚝엔 검은 털이 나 있었다. 털 아래로 몹시 하얀 피부가 보였다. 별로 보기 좋지 않았다. 레몽은 휘파람을 불며 내려왔다.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나에게 인사했다. “어이, 좋은 아침.” 마리를 ‘아가씨’라고 불렀다.

전날 레몽과 경찰서에 갔었다. 나는 여성이 레몽을 ‘속여먹었다’고 진술했다. 훈방조치가 되었다. 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문 앞에서 레몽과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버스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해변이 멀진 않았지만 버스를 타면 더 빨리 갈 테니. 레몽은 우리가 일찍 도착하면 자기 친구가 기뻐할 거란다. 출발하려고 했는데 레몽이 갑자기 길 건너편을 보라고 손짓했다. 담배 가게 진열창에 몸을 기대 아랍인 무리가 보였다. 말없이 우리를 바라봤다. 그들 특유 방식으로, 마치 돌이나 죽은 나무를 바라보듯. 왼쪽에서 두 번째가 바로 그 녀석이라고 레몽이 알려줬다. 레몽은 신경 쓰인다는 눈치였다. 그러더니 이젠 끝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 마리가 뭐 일이냐고 물었다. 레몽한테 양심을 품은 아랍인들이라고 말해줬다. 마리가 어서 출발하길 바랐다. 레몽이 몸을 펴더니 웃으며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레몽은 아랍인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고 알려줬다. 나는 뒤돌아봤다. 아랍인들은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아까의 무관심함으로 우리가 떠난 자리를 바라봤다. 우리는 버스에 탔다. 레몽은 완전히 안심한 듯, 계속 마리한테 농담을 던졌다. 마리가 마음에 든 모양이다. 마리는 별로 대꾸해주지 않던데. 이따금 웃으며 레몽을 쳐다볼 뿐.

알제 교외에서 내렸다. 해변은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바다를 굽어보는 작은 고원을 지나쳐야 비로소 해변에 이르는 급경사가 나왔다. 고원은 노르스름한 돌과 새하얀 수선화로 뒤덮인 채 질푸른 하늘을 떠받쳤다. 마리는 가방을 휘둘러 수선화 꽃잎을 흩날리게 하며 놀았다. 우리는 초록색이나 흰색 울타리가 쳐진 작은 별장들이 줄지은 사이로 지나갔다. 몇몇은 타마리스크 가지 아래 테라스와 파묻혔고, 몇몇은 돌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였다. 고원 끝에 도달할 즈음 미동도 없는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맑은 물에 나른하게 잠긴 묵직한 곳도 저 멀리 보였다. 고요한 대기를 타고 모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눈부신 바다 한가운데서 어선이 서서히,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마리는 돌 사이로 피어난 붓꽃을 몇 송이 꺾었다. 바다로 향하는 내리막길에서 보니 몇몇 사람들이 이미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중이었다.

레몽 친구는 해변 끝에 위치한 작은 나무 별장에 살았다. 별장은 바위를 등지고 지어졌다. 앞부분을 받치는 기둥들은 벌써 물에 잠긴 채였다. 레몽이 서로를 소개했다. 친구 이름은 마송. 키가 크고 몸집과 어깨가 떡 벌어진 사람이었다. 작고 통통한 아내는 친절했고 파리 억양이었다. 마송은 우리를 보자마자 편하게 쉬라고 했다. 아침에 막 낚아온 생선으로 튀김 요리를 했다며. 마송한테 집이 무척 예쁘다고 말해줬다. 주말이나 휴일만 되면 여기 와서 지낸단다. “물론 아내하고 같이 온답니다.” 마송이 덧붙였다. 마침 마송 아내가 마리와 웃고 있었다. 내가 정말 결혼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인 것 같다.

마송은 바다에 몸을 담그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마송 아내와 레몽은 가지 않으려고 했다. 셋이서만 해변으로 내려갔다. 마리는 바로 물로 뛰어들어갔다. 마송과 나는 조금 기다렸다. 마송은 말을 느리게 했다. 말끝마다 ‘그리고 말이야를 덧붙이는 습관이 있었다. 말에 아무런 의미를 더하지 않을 때조차. 마송은 마리더러 “대단한 여자네요. 그리고 말예요, 매력적이에요.”라고 했다. 말버릇이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햇살을 만끽하기에도 바빴다. 발밑 모래가 달궈지기 시작했다. 물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를 조금 더 참다가 마침내 마송한테 “들어가 볼까요?”라고 말했다. 물로 뛰어들었다. 마송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오다 발이 닿지 않는 깊이에 다다르자 몸을 내던졌다. 평영을 하던데, 실력은 별로였

다. 마송을 놔두고 마리 쪽으로 갔다. 물은 찼다. 헤엄치니 기분이 좋았다. 마리와 먼바다로 나갔다. 우리 움직임은 어우러졌고, 서로 충만한 기분을 누렸다.

먼바다에 이르렀다. 마리와 나는 물 위에 누웠다. 얼굴은 하늘을 향했다. 태양은 입으로 흘러들어 가던 마지막 물기를 닦아주었다. 햇별을 쫓러 해변으로 돌아가는 마송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보니 참 거대해 보였다. 마리는 같이 헤엄치자고 했다. 마리 뒤쪽으로 팔로 그녀 허리를 감았다. 마리는 앞으로 가기 위해 팔을 저었고 나는 발차기를 하며 도왔다. 물 차는 여린 소리가 아침 내내 우리를 따라다녔다. 내가 지칠 때까지. 그래서 마리를 놔두고 규칙적으로 헤엄치고 숨을 크게 쉬며 해변으로 돌아갔다. 해변에 도착해 배를 깔고 마송 가까이 누우며 얼굴을 모래에 파묻었다. 나는 “참 좋군요.”라고 말했다. 마송도 좋단다. 조금 뒤 마리도 왔다. 마리가 오는 모습을 보려고 돌아누웠다. 마리는 소금물 범벅이어서 번들거렸다. 머리를 뒤로 젖혀 손에 쥐었다. 내 옆으로 나란히 누웠다. 마리 몸에서 나오는 온기와 태양의 온기가 이중으로 다가오니 슬며시 잠들었다.

마리가 나를 흔들며 깨워 마송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줬다. 점심 먹을 때라고 배가고파 곧바로 일어났다. 마리가 아침에 일어난 후로 자기를 안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이였다. 안아주고 싶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자.” 마리가 말했다. 우리는 달려가 첫 잔파도에 몸을 부딪쳤다. 같이 팔을 몇 번 젓다 보니 마리가 나한테 딱 달라붙었다. 마리 다리가 내 다리를 감싸는 게 느껴졌다. 정육이 올라왔다.

돌아와 보니 마송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배가 무척 고프다고 했고 마송은 곧바로 아내한테 내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빵은 맛있었다. 내 접시에 놓인 생선요리를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그리고 고기와 감자튀김이 나왔다. 우리 모두 말없이 먹기만 했다. 마송은 끊임없이 술을 들이켜며 내 잔도 계속 채웠다. 커피 마실 무렵이 되자 머리가 지끈거렸다. 담배를 많이 태웠다. 마송, 레몽하고 나는 해변에서 같이 팔월을 보내자고 의논했다. 비용은 공동 부담하고. 갑자기 마리가 말했다. “지금 몇 신지 알아요? 열한 시 반이예요!” 모두 놀랐다. 그런데 마송이 우리가 점심을 일찍 먹어서 그렇다며, 원래 점심은 배고플 때 먹는 거니 이상할 거 없다고 했다. 마리가 이 말에 왜 웃었는지 모르겠다. 술을 너무 마셨나 보지. 마송이 나더러 같이 해변 따라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아내는 점심 먹고 나면 꼭 낮잠을 자거든요. 난 별로야. 걷는 게 좋지. 아내한테도 그게 건강에도 좋다고 맨날 말하죠. 어쨌거나 뭘 하든 자기 마음이지 뭐.” 마리는 집에 남아서 마송 부인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다. 키 작은 파리 여성은 그러려면 일단 남정네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셋이서 밖으로 내려갔다.

햇살이 모래를 거의 수직으로 내리쳤고, 바다 위에 번쩍 반사되었다. 견디기 힘들었다.

해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원 가장자리를 따라 바다 쪽으로 줄지은 별장들에서 식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돌의 열기에 숨쉬기도 벅찼다. 레몽과 마송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둘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가, 한 때 같이 산 적도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물가로 가서 바다를 따라 걸었다. 간혹 잔파도가 깊숙이 밀려와 우리 캔버스화를 적셨다. 맨머리를 찌르는 태양 때문에 반쯤 잠든 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 순간 레몽이 마송한테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렸다. 마침 우리와 멀리 떨어진 해변 저 끝에서 푸른 작업복 차림의 아랍인 두 명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걸 발견했다. 레몽을 바라보자 레몽이 “그놈이야.”라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마송은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따라왔는지 의아해했다. 우리가 비치백을 갖고 버스 타는 걸 봤겠지. 하지만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랍인들은 천천히 다가왔지만 어느새 많이 가까워졌다. 우리도 여전히 속도를 늦추지 않고 걷는 중이었다. 레몽이 말했다. “한판 붙게 되면 마송, 넌 두 번째 놈을 맡아. 내 놈은 내가 상대할 테니까. 피르소, 만약 판 놈이 더 오면 네 몫이야.” 나는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마송은 주머니에 두 손을 넣었다. 달아오른 모래가 시뻘겑게 느껴졌다. 우리는 일정한 걸음걸이로 아랍인들 쪽으로 다가갔다. 점차 간격이 좁혀졌다. 몇 걸음 안 남자 아랍인들이 멈췄다. 마송과 나는 걸음을 늦췄다. 레몽은 곧장 자기 상대를 향해 걸어갔다. 레몽이 아랍인한테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들렸지만 아랍인은 레몽을 머리로 받으려는 것 같았다. 그러자 레몽이 첫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 바로 마송을 불렀다. 마송이 자기가 맡은 아랍인한테 가더니 온 힘을 실어 두 대를 쳤다. 아랍인이 물속으로 자빠졌다. 얼굴을 박은 채. 그리고는 잠시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머리 주위로 거품이 올라와 수면에서 터졌다. 그동안 레몽도 자기 상대를 때렸다. 아랍인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레몽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녀석이 당하는 꼴을 잘 보라고.”라고 말했다. 나는 소리쳤다. “조심해! 칼이야!” 그런데 그새 레몽 팔에서 피가 흘렀고 입도 베였다.

마송이 앞으로 확 다가섰다. 그런데 자빠졌던 아랍인이 다시 일어나 칼 든 일행 뒤로 갔다. 우리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아랍인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계속 우리를 노려보며, 칼을 세워 위협하며. 적당한 거리가 확보됐다 싶으니까 아랍인들은 재빨리 도망쳤다. 그동안 우리는 태양 아래서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레몽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움켜쥐었다.

마송은 즉각 일요일마다 근처 별장에 오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레몽은 당장 그리로 가길 바랐다. 그런데 레몽이 말할 때마다 상처 때문에 입에 피거품이 일었다. 우리는 레

몽을 부축해서 최대한 빨리 마송 별장으로 돌아갔다. 도착하자 레몽은 상처가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 의사를 보러 가겠다고 했다. 레몽은 마송과 같이 떠났다. 나는 마리와 마송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남았다. 마송 부인은 울었고, 마리는 새하얗게 질렸다. 사실 설명하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다. 그만두고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한 시 반쯤 되자 레몽이 마송과 돌아왔다. 팔에는 붕대를, 입가에는 반창고를 하고. 의사 말로는 별 게 아니라는데 레몽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 마송은 일부러 레몽을 웃겨 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레몽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해변으로 가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어딜 가려는지 물었다. 레몽은 바람을 좀 쐬고 싶다고 대답했다. 마송과 나도 같이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레몽이 화내며 우리에게 욕을 퍼부었다. 마송은 괜히 레몽 성질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나는 그래도 레몽을 따라갔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변을 걸었다. 짓누르는 태양 아래로. 햇빛이 모래와 바다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마치 레몽이 목적지를 두고 걷는 느낌이었다. 아마 내 착각이었겠지. 해변 끝까지 갔다. 우리는 큰 바위 뒤에 있는 작은 샘에 도착했다. 샘은 모래 사이로 흘렀다. 거기서 아까의 두 아랍인과 마주쳤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누워 있었다. 아랍인들은 매우 평온해 보였으며 심지어 흡족해 보이기까지 했다. 우리를 봤는데도 전혀 변함없었다. 레몽을 공격했던 아랍인은 말없이 레몽을 바라봤다. 다른 아랍인은 우리를 흘려보며 작은 갈대를 피리 삼아 불었다. 갈대가 낼 수 있는 세 개 음만 반복했다.

그러는 내내 햇살, 고요, 작은 샘물 소리와 피리의 세 개 음만이 흘러갔다. 레몽이 주머니 속 권총을 쥐었지만 아랍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둘은 계속 서로를 바라봤다. 피리를 부는 아랍인 발가락이 유난히 벌어져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다. 레몽이 자기 적수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내게 물었다. “한 발 먹일까?” 안 된다고 하면 분명 혼자 흥분하다가 씹버리겠지. 나는 “아직 너한테 시비도 안 걸었잖아. 이대로 씹버리는 건 치사한데.” 라고만 말했다. 샘물과 피리의 작은 소리가 열기와 고요 한가운데서 여전히 울려 퍼졌다. 그때 레몽이 말했다. “그럼 내가 놈한테 욕을 하고, 놈이 대꾸하면 그때 한 발 먹일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녀석이 칼을 빼들지 않으면 쏘지 마.” 레몽은 조금 흥분하기 시작했다. 다른 아랍인은 여전히 피리를 불었고, 둘은 레몽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나는 레몽한테 말했다. “아니야. 차라리 나한테 권총을 주고 녀석과 남자답게 한판 붙어. 다른 놈이 끼어들거나 칼을 빼들면 내가 쏴 버릴게.”

레몽이 나한테 권총을 건네는 순간 햇빛이 그 위로 미끄러졌다. 그럼에도 다들 움직이지 않은 채 계속 서 있었다. 사방이 막혔다는 듯이. 눈을 똑바로 뜬 채 서로를 응시했다. 여기서 모든 게 정지했다. 바다, 모래, 태양, 샘물과 피리가 자아내는 이중의 고요 사이에

서. 그 순간 나는 쏘거나 쏘지 않을 수 있구나 싶었다. 그런데 아랍인들이 갑자기 바위 뒤로 기어들어 가버렸다. 레몽과 나는 걷던 길을 이어 갔다. 레몽은 기분이 한결 나아 보였다. 나한테 돌아갈 버스 이야기를 했다.

레몽을 별장까지 데려다 줬다. 레몽이 나무 계단을 오르는 동안 나는 계단 앞에 서 있었다. 머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태양이 느껴졌다. 나무 계단을 올라 집에 있을 마송 아내와 마리를 상대할 생각에 힘이 빠졌다. 그런데 어찌나 무덥던지,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눈부신 비를 맞으며 가만히 있기가 괴로웠다. 남느냐 떠나느냐, 결국 마찬가지로였다. 잠시 후 나는 해변 쪽으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빛은 여전히 시뻘겍게 폭발했다. 바다는 험뻑이며 잔파도의 빠르고 가쁜 숨결을 모래로 내보냈다. 천천히 바위를 향해 걸었다. 햇빛을 머금은 탓에 부풀어 오르는 이마를 느끼며. 온 더위가 나를 짓눌렀고, 앞길을 가로막았다. 뜨겁고 힘찬 열기가 얼굴로 불어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바지 주머니 속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태양과, 태양이 쏟아내는 불가사의한 취기를 이기고자 온 힘을 집중했다. 모래나 하얀 조개껍질, 유리조각에서 빛의 검은 솟아날 때마다 턱이 움츠러들었다. 오랫동안 걸었다.

저 멀리서 거무스름한 작은 덩어리가 보였다. 빛과 바다 먼지가 자아내는 눈부신 후광에 둘러싸인 바위였다. 바위 뒤 신선한 샘이 떠올랐다. 물 흐르는 잔잔한 소리를 되찾고 싶었다. 태양, 고된 수고, 여성의 울음소리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그늘을 만끽하며 그 아래서 쉬고 싶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레몽이 상대했던 아랍인이 돌아와 있었다.

아랍인은 혼자였다.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목덜미를 받치고 있었다. 바위 그늘이 그의 이마를 가렸으나, 온몸은 햇살 아래 놓였다. 작업복에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조금 놀랐다. 어차피 나한테 다 지난 일이라 별생각 없이 돌아온 거라서.

나를 보자마자 아랍인은 몸을 약간 일으키더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당연히도 재킷 주머니에 든 레몽 권총을 쥐었다. 한편 아랍인은 도로 누웠는데, 주머니에서 손을 빼진 않았다. 그와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십여 미터 정도. 반쯤 감긴 아랍인의 눈꺼풀 사이로 그의 시선이 잠깐씩 느껴졌다. 하지만 대체로 그의 모습은 타오르는 대기에 휩싸여 내 눈앞에 어른거렸다. 파도 소리가 정오 때보다도 더 나른하게, 더 잔잔하게 들려왔다. 여전한 모래를 내리치는 여전한 빛과, 여전한 태양이 여기까지 이어졌다. 벌써 두 시간째 하루가 멈춰 섰다. 두 시간째 끓는 금속 대양에 닿을 내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수평선 따라 작은 증기선이 지나갔다. 아랍인한테서 눈을 떼지 않다 보니 그저 한 구석의

검은 자국처럼 보였다.

되돌아가기만 하면 모두 끝날 일이긴 했지. 하지만 내 뒤론 햇볕에 진동하는 온 해변이 버터 섰다. 샘을 향해 몇 발자국 내디뎠다. 아랍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쨌든 아직 거리가 있었으니. 웃고 있는 듯했다. 얼굴에 드리운 그늘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걸지도 모른다. 나는 기다렸다. 타는 듯한 햇볕이 불을 데우기 시작했다. 눈썹에 쌓이는 땀방울이 느껴졌다. 엄마 장례를 치르던 날과 같은 태양이었고, 그때처럼 유달리 이마가 아팠다. 이마 아래 흐르는 모든 혈관이 거칠게 뿔박질했다. 불타는 태양을 더는 견딜 수 없어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어리석은 짓인 건 알았다. 한 걸음 움직인다고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걸음, 딱 한 걸음 앞으로 갔다. 그러더니 이번엔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칼을 태양에 비추며 빼들어 내게 겨누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되어 번쩍이는 긴 칼날처럼 내 이마를 겨냥했다. 그 순간 눈썹에 켜켜이 쌓인 땀이 단번에 흘러내려 미지근하고 두터운 베일로 눈꺼풀을 덮었다. 눈물과 소금 장막 탓에 눈앞이 안 보였다. 이마에서 퍼지는 태양의 심벌즈 소리만 들렸다. 아직 나를 향하는 칼에서, 눈부신 검이 희미하게 튀어나왔다. 불타는 검이 속눈썹을 갉아먹고, 고통스러운 두 눈을 파고들었다. 그러자 모든 것이 흔들렸다. 바다는 타오르는 두터운 숨결을 내뿜었다. 마치 하늘이 불을 쏟아붓기 위해 활짝 열리는 듯했다. 내 존재 전체가 긴장했고, 손으로 권총을 쥐어 잡았다. 방아쇠가 뒤로 무너졌다. 매끈한 총자루 아랫부분이 느껴졌다. 바로 거기서, 건조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 냈다. 내가 하루의 균형과, 행복을 느꼈던 해변의 이례적인 고요를 깨뜨렸구나.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몸 에다 네 발을 더 쫓았다. 총알은 흔적도 없이 박혔다. 그렇게 불행의 문에 네 번의 짧은 노크를 했다.

제2부

I

체포된 직후 여러 번 신문을 받았다. 그런데 대체로 신원조사라서 오래 걸리진 않았다. 처음에는 경찰이 내 사건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반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만난 예심 판사는 호기심이 동한 모양이었다. 우선 내 이름과 주소, 직업, 생년월일과 출생지만 물어봤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아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꼭 필요한지 물었다. “그건 왜 묻죠?” 판사가 말했다. 내 사건은 매우 단순하지 않으냐고 대답했다. 판사는 웃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사법(司法)이 이런 부분까지 맡아 주니 참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한테도 말해줬다. 그렇다며, 법이 잘 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처음엔 예심판사를 그리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나는 커튼 쳐진 방으로 안내받았다. 책상 위에 안락의자를 비추는 램프가 딱 하나 있었다. 나더러 그 의자에 앉으라더니 자기는 어둠 속에 머물렀다. 이미 책에서 비슷한 묘사를 몇 번 접했던지라 모든 게 일종의 장난처럼 여겨졌다. 반면, 대화가 끝날 무렵이 되자, 섬세한 이목구비, 움푹 파인 파란 눈, 큰 키, 긴 회색빛 수염, 백발에 가까운 풍성한 머릿결을 지닌 인간으로서 판사가 눈에 들어왔다. 매우 이성적으로 보였고, 입을 찡그리는 신경성 경력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사람 같았다. 나는 나가며 악수까지 청할 뻔했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가까스로 떠올랐다.

다음 날 변호인이 나를 보러 교도소로 왔다. 작은 키에 통통하고 짧은 편이었으며, 머리를 정성스레 비질해 붙인 모습이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나는 셔츠 차림이었다) 변호인은 짙은 색 정장 안에 각 잡힌 셔츠를 입고, 큼지막한 흑백 줄무늬가 그어진 이상한 넥타이를 매었다. 팔 밑에 끼고 온 서류 가방을 내 침대에 올려놓더니 자기를 소개하고선 내 사건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사건이었지만 자기만 믿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장담했다. 고맙다고 하자 변호인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라고 했다.

변호인은 침대에 앉더니 당국이 내 사생활 관련 정보를 알아냈다고 말해줬다. “어머님께서 최근 양로원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당국이 마랑고 지역을 조사했다. 수사관들이 내가 장례 당일 ‘냉담해 보였다’는 걸 알게 됐다. 변호인이 말했다. “이런 질문을 하기가 조금 낯뜨럽긴 한데,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요. 검사 측에서 이 점을 반드시 걸고넘어질 거라 대답할 만한 게 필요하거든요.” 나더러 협조해 달라며, 그날 마음이 아팠는지 물어봤다. 질문을 받고 많이 놀랐다. 나였어도 이런 질문을 하기 무척 낯뜨러웠을 것 같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습관이 잘 없어서 그때 어땠는지 알려주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물론 엄마를 깊이 사랑하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건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다소간 바라지 않던가. 순간 변호인이 몹시 흥분한 듯 내 말을 끊었다. 공판정에서나 예심판사 앞에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럼에도 내 성격상 육체적 욕구가 감정을 방해한다는 점을 변호인에게 설명해줬다. 엄마 장례를 치르던 날 너무 피곤했고 잠이 왔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였다.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점만큼은 분명했다. 그런데 변호인은 불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그저론 부족해요.”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그날 자연스러운 감정을 애써 참은 거라고 말해도 될지 물었다. “안 됩니다. 그건 거짓이니까요.” 내가 대답했다. 변호인은 내가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떤 경우든 양로원 원장과 직원들이 증인석에 설 거고, 그럼 “일이 꼬이게 될 것”이라고 꽤 사납게 말했다. 그 일은 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느냐고 따졌으나, 변호인은 내가 사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뻔히 보인다고만 대답했다.

변호인은 화가 난 듯 나갔다. 붙잡아서 나한테 호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야 나를 더 잘 변호해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뭐랄까, 그러는 게 당연히 나오니까. 무엇보다 나 때문에 변호인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다.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조금 탓하는 것 같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어차피 설명해봐야 별 소용없는 일이라 귀찮아서 관뒀다.

조금 뒤, 다시 예심판사와 만났다. 오후 두 시였다. 이번에는 천 커튼 너머로 스며든 빛이 판사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몹시 더웠다. 판사는 내게 앉길 권하더니 변호인이 “갑자기 일이 생겨” 오지 못했다고 매우 정중하게 알려줬다. 그런데 내게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권리가 있다. 나는 혼자 대답할 수 있다고 했다. 판사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 버튼을 눌렀다. 젊은 서기가 들어오더니 내 등 바로 뒤에 자리 잡았다.

우리 둘은 안락의자에 몸을 맡겼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사람들이 나더러 과묵하고 폐쇄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한다며, 거기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듣고 싶어 했다. 나는 대답했다. “그게, 언제나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을 닫아 버립니다.” 판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미소 짓더니 아주 타당한 이유라고 말하곤 덧붙였다. “더구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판사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갑작스레 몸을 바로 세우더니 단숨에 “문제는 바로 당신, 피르소 씨죠.”라고 말했다.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대답하지 않았다. 판사는 덧붙여 말했다. “피르소 씨의 살인행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그저 매우 단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그날 하루를 되짚어 달라고 재촉했다. 이미 지난번에 말한 내용이지만 다시 되짚어 줬다. 레몽, 해변, 해수욕, 싸움, 다시 해변, 작은 샘, 태양, 그리고 다섯 번의 총성. 판사는 말끝마다 “그렇군요.”라고 말했다. 땅에 쓰러진 육신 이야기에 이르자 잘 들었다는 듯이 “좋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자니 싫증이 났고, 여태까지 이토록 말을 많이 해본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판사가 일어서며 나를 돕고 싶다고, 나한테 관심이 있고 하느님의 보살핌 아래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주겠다고 말했다. 그전에 질문 몇 가지가 남아 있었다. 느닷없이 엄마를 사랑하는지 물었다. “네.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 순간 여태까지 규칙적으로 속기를 해오던 서기가 자판을 잘못 누른 듯 당황하더니 앞서 타이핑한 내용을 고쳤다. 그리고 판사는 내가 권총 다섯 발을 연이어 쏘는지 물었다. 여전히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질문이었다. 생각 끝에 처음에는 한 발만 쏘고, 조금 뒤에 네 발을 더 쏘었다고 구체적으로 짚어줬다. “첫발과 두 번째 사이에 왜 기다린 거죠?” 다시 한 번 시뮬건 해변과, 이마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침묵에 판사는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의자에 앉고, 머리를 쥐어뜯고선, 책상에 팔을 쥔 채 묘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왜, 대체 왜 쓰러진 육신을 또 쏘습니까?” 이번에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판사는 이마를 쓸어내리고, 조금 다른 어조로 재차 질문했다. “왜 그랬습니까? 대체 왜요? 대답하셔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입을 닫았다.

판사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사무실 한구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서랍을 열었다. 은십자가상을 꺼내 들어 흔들며 내 쪽으로 왔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분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나는 “네, 당연하죠.”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판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자기는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지만,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을 지닌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게 자기 신념이라고 순식간에 말했다. 판사는 책상에 완전히 기대고 있었다. 거의 내 바로 위로 십자가상을 흔들며 댔다. 사실 판사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더웠고, 사무실에 돌아다니는 커다란 파리들이 이따금 내 얼굴 위에 내려앉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판사가 조금 무서웠던 까닭이다. 물론 내가 범죄자라는 걸 감안하면 이런다는 게 터무니없긴 했다. 그런데도 판사는 말을 이었다. 가만히 들어보니 판사는 내 자백 중에 딱 한 지점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발을 쏘기 전에 기다렸다는 점. 나머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이 점만큼은 이해가 안 간다.

괜한 집착이라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판사는 내 말을 가로막고 별뿔 일어서더니,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하며 하느님을 믿는지 물어봤다. 아니라고 대답했다. 판사는 분개하며 앉았다. 그건 불가능하다며, 세상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애써 외면하려는 자들도 믿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게 바로 자기 신념이었으며, 만약 자기 신념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된다면 자기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거란다. 그는 외쳤다. “제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길 바라세요?” 어차피 나와는 별로 상관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판사는 책상 건너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 들이밀며, 이성을 잃은 듯 소리 질렀다. “난 교인이야! 주님께 네 죄를 사하여 달라고 빈단 말이다. 주님께서 너를 위해 고통받으셨단 걸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지?” 나한테 말을 놓았던 걸 알았지만 이젠 지켜왔다. 갈수록 더웠다. 들어주기 버거운 사람과의 대화를 끝내고 싶을 때마다 늘 그러듯, 판사의 말에 수궁하는 시늉을 했다. 놀랍게도 판사는 의기양양해졌다. 그가 말했다. “거 봐! 거 보라고! 주님을 믿는 거지? 주님께 의지할 거지?” 물론 나는 아니라고 한 번 더 말했다. 판사는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몹시 지쳐 보였다. 판사는 말없이 있었다. 지금껏 대화를 속기하던 서기는 마지막 몇 문장을 마저 타이핑했다. 그리고 나서 판사가 나를 주의 깊게, 약간 슬픈 눈길로 바라봤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르소 씨처럼 무정한 영혼은 처음 봅니다. 지금껏 저와 만났던 범죄자들은 모두 이 고난의 형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범죄자들이니까 그런 게 아니겠느냐고 대답하려고 했다. 그러다 나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단 생각이 들었다. 적응하기 힘든 생각이었다. 판사는 이제 신문이 끝났다는 듯이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지친 모습으로 내 행동을 뉘우치는지 물었다. 생각 끝에, 진심으로 뉘우친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일을 당하게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았다. 어쨌든 그날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다.

그 후로도 예심판사와 자주 만났다. 다만 그때마다 변호인도 동석했다. 주로 내가 전에

했던 진술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었다. 판사가 변호인과 증거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순간에도 그들은 내게 전혀 신경 써주지 않았다. 여하간 신문 분위기가 차차 달라지긴 했다. 판사가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였다. 마치 내 사건이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느낌이었다. 더 이상 하느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첫 만남 때와 같은 걱정을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 만남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질문 몇 개, 변호인과 약간의 대화, 그러면 신문은 끝이 났다. 판사는 내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표현했다. 대화가 일반적인 주제로 흐를 때면 나도 끼어들곤 했다. 숨통이 조금 틈었다. 아무도 나를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모든 게 어찌나 자연스럽게, 잘 조율되어, 간결하게 진행되었던지 나도 이들과 ‘한가족이나 다름없다’는 터무니없는 인상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예심이 11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다 보니, 판사가 나를 문까지 배웅하며 어깨를 두들기곤 “오늘은 여기서 끝입니다, 적(敵)그리스도 씨.”라고 호의를 담아 말해주던 그 드문 순간들을 내가 꽤 즐기게 됐다는 사실에 살짝 놀랐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 보면 경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II

결코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다. 교도소에 들어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여기서 보낸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되리란 걸 알게 됐다.

시간이 흐르자 그 거부감이 열어졌다. 사실 교도소에 있던 첫 며칠간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마치 뭔 일이 터지지 않을까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마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면회를 온 뒤 비로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마리 편지(아내가 아니라서 더 이상 면회할 수 없단다)를 받은 날, 그날부터 이 감방이 내 집이자, 내 삶이 멈춘 곳이구나 싶었다. 체포 당일엔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방에 나를 가뒀다. 대부분 아랍인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웃었다. 뭘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물었다. 아랍인을 죽였다고 하자 다들 조용해졌다. 조금 뒤에 해가 졌다. 수감자들은 어떻게 거적을 이용해 잠자리를 만드는지 알려줬다. 한쪽을 둘둘 말아 베개 삼아 자면 됐다. 빈대들이 밤새도록 얼굴 위로 지나다녔다. 며칠 뒤 독방으로 격리됐다. 판자 침대에서 자야 했다. 용변용 양동이와 양철 대야도 있었다. 교도소는 도시 꼭대기에 있었고, 작은 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쇠창살에 기대어 빛을 향해 고개를 내밀던 어느 날, 교도관이 들어오더니 누가 면회 왔다고 알려줬다. 마리일 것 같았다. 마리였다.

긴 복도, 계단, 그리고 복도를 하나 더 지나 면회실에 도착했다. 매우 큰 공간이었다. 넓은 창 너머로 들어온 햇살이 면회실을 밝혔다. 두 개의 큰 철책이 면회실을 셋으로 길게 나누어 놓았다. 두 철책 사이로 8에서 10미터 정도의 간격이 있어 면회객과 수감자들을 갈라놓았다. 마리가 맞은편에서 보였다. 줄무늬 원피스에, 얼굴을 햇볕에 그을린 모습이었다. 내 쪽엔 십여 명의 수감자가 있었다. 대체로 아랍인들이었다. 마리는 무어 여성들한테 둘러싸였다. 그녀 양옆으로는 검은 복장에 입술을 짝 다문 쪼그만 노파, 그리고 맨 머리에 손짓을 많이 해가며 무척 큰 목소리로 말하는 뚱뚱한 여성. 철책 사이 거리 탓에 면회객들과 수감자들은 아주 크게 말해야 했다. 사람들 목소리가 텅 빈 벽에 반사되어 울렸다. 하늘에서 창문으로 흘러내린 억센 빛은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면회실에 막 들어갔

을 때 살짝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감방은 더 조용하고 어두웠다. 익숙해지기까지 몇 초 정도 걸렸다. 마침내 가득한 햇살 사이로 얼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다. 둘러보니 철책 사이의 복도 끝에 교도관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아랍인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은 대체로 웅크려 마주 앉았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다. 소란에도 불구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밑에서부터 형성된 어렴풋한 속삭임은, 그들 머리 위로 교차하는 대화들에 대비되어 지속적인 저음부처럼 들렸다. 마리한테 다가가는 와중에 이 모든 걸 알아챘다. 마리는 벌써부터 철책에 몸을 기댄 채 있는 힘껏 웃어 보였다. 무척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말을 어떻게 전할지 몰랐다.

“좀 어때?” 마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떻긴, 이렇지.” “괜찮아? 더 필요한 건 없고?” “응, 전혀.”

우리는 말을 멈췄다. 마리는 여전히 웃었다. 뚱뚱한 여성은 내 옆 사람에게 소리 질렀다. 남편 같았다. 솔직해 보이는 인상의 키 큰 금발 남성이었다. 이미 대화가 한창이었다.

“잔느가 갠 마음에 안 든대.” 여성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응, 그렇구나.” 남성이 말했다. “당신이 나오면 걔 다시 데려갈 거라고 말했는데도 싫대.”

레몽이 안부를 전한다고 마리가 건너편에서 소리쳤다. 나는 “고마워.”라고 말했다. 하지만 옆 사람 목소리 때문에 말이 묻혔다. 옆 사람은 “좀 어때 보이는지” 물었다. 아내는 웃으며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내 왼쪽엔 가녀린 손을 가진 키 작은 젊은이가 말없이 있었다. 아까의 쪼그만 노파와 마주 앉은 채였다. 둘은 깊은 눈길을 주고 받았다. 그런데 마리가 내게 희망을 품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들을 더 오래 관찰하진 못했다. 나는 “그래.”라고 말했다. 동시에 마리를 바라봤다. 마리 어깨를 원피스 위로 감싸고 싶었다. 그 얇은 천을 바랐다. 그밖에 무얼 더 희망해야 하는지 몰랐다. 마리가 여전히 웃는 걸 보니 마리도 그런 뜻이었나 보다. 마리의 반짝이는 치아와 눈가의 잔주름만 보였다. 마리는 다시금 “곧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했다. 나는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뭐라도 말하려고 한 말이었다. 그러자 마리는 여전히 큰 목소리로 그렇다며, 무죄가 선고될 거고, 다시 해수욕할 수 있을 거라고 매우 빠르게 말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여성이 바구니를 교도소 측에 맡겼다고 소리 질렀다. 뭐가 들어 있는지 하나하나 열거했다. 비싼 돈 준 거니 꼭 확인하라고 했다. 다른 편에 앉았던 젊은이는 여전히 자기 어머니와 마주 보았다. 아랍인들의 속삭임이 낮게 깔려 지속됐다.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창에 기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졌다. 이만 가고 싶었다. 소음 때문에 괴로웠다. 다른 한편으론 마

리와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마리는 자기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미소 지었다. 속삭임, 외침, 대화가 교차했다. 내 옆에 있던 작은 젊은이와 노파의 눈길 주위로 침묵의 외딴섬이 형성됐다. 점차 아랍인들을 데려갔다. 첫 수감자를 데려가자마자 거의 모두 말을 멈췄다. 쪼그만 노파는 쇠창살로 다가섰다. 그 순간 교도관이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했다. 젊은이는 “잘 들어가요, 엄마.”라고 말했다. 노파는 쇠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어 시간을 붙잡고 싶다는 듯이 아들에게 천천히, 작은 손짓을 했다.

노파가 떠나는 동안 모자를 손에 쥔 남성이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수감자가 한 명 나왔고, 둘은 활기차게 대화했다. 하지만 주위가 워낙 조용해서 둘은 작게 말했다. 오른 편에 있던 남성을 데리러 왔다. 아내는 더 이상 소리칠 필요가 없단 걸 눈치채지 못했던 듯이 여전히 큰 소리로 “몸 잘 챙기고, 조심해야 돼!”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다. 마리는 손으로 키스를 보냈다. 면회실을 나서기 나는 뒤돌아봤다. 마리는 움직이지 않은 채 얼굴을 쇠창살에 바짝 붙여 여전히 어그러질 정도로 힘껏 미소 짓고 있었다.

얼마 후 마리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코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시작됐다. 어차피 뭐든 과장해선 안 된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었다면 바로 과장하지 않는 거였다. 그런데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동안 나는 여전히 자유인처럼 사고했다. 그게 제일 힘들었다. 예를 들어 해변에서 노닐다가 바다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발치에 와 닿는 첫 파도 소리, 물속에 몸을 담갔을 때의 촉감과 해방감을 상상하다 보면 감방을 둘러싼 벽이 얼마나 좁은지 순간 느껴졌다. 그런데 이런 기분도 몇 달 안 갔다. 그 이후론 온통 죄수처럼 사고했다. 마당에서 매일 하는 산책이나 변호인 접견을 기다렸다. 나머지 시간은 나름 잘 때웠다. 나더러 마른 그루터기 안에서 하늘에 핀 꽃이나 바라보며 살라고 했어도 결국엔 차츰 익숙해졌으리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새들이 지나가거나 구름과 마주치길 기다렸을 거다. 마치 변호인이 매고 오는 이상한 넥타이를 기다렸듯, 다른 세계에서 마리 몸을 꼭 껴안을 수 있는 토요일을 기다렸듯. 어쨌든 잘 생각해보면, 난 그루터기에 갇힌 건 아니었다. 나만 못한 처지도 있었다. 결국 무엇이든 간에 익숙해지고 만다. 엄마 생각이었다. 자주 말씀하시던 생각이었다.

더구나 평소에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건 아니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노력 덕분에 시간이 그러저럭 지나갔다. 예컨대 여자가 그리워 괴로웠다. 젊었으니 당연했다. 마리만 생각했던 건 결코 아니다. 그냥 여자 생각이 몹시 났다. 여태까지 알았던 여성들, 여성들을 사랑했던 모든 장면이 어찌나 머리에 떠오르던지 감방이 여성들 얼굴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찼다. 어떤 면에선 불안정해질 정도였다. 한편 그러면서 시간을

죽이기도 했다. 마침내 취사 담당과 식사 시간마다 동행하던 교도관 대장하고 친분을 쌓았다. 여자 이야기는 교도관이 먼저 꺼낸 거였다. 수감자들이 여자 생각 때문에 보통 불만을 품기 시작한다. 나도 불만이라고, 이런 취급은 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도관은 말했다. “바로 그래서 범죄자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거죠.” “뭘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자유가 그런 거예요. 그 자유를 빼앗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점이였다. 나는 동의하며 말했다. “그렇네요. 그게 바로 형벌이겠죠?” “그렇죠. 피르소 씨야 이해가 되겠죠. 다른 수감자들은 이해를 잘 못 하거든요. 결국 알아서들 해결하지만.” 그러곤 교도관은 떠났다.

담배도 문제였다. 교도소에 수감되자 벨트, 구두끈, 넥타이, 주머니에 든 물건 전부, 무엇보다 담배를 빼앗겼다. 감방에 갇히고 나서 담배를 좀 돌려달라고 해봤다.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첫 며칠은 너무 힘들었다. 담배 때문에 정말 낙심한 것 같다. 침대 판자에서 뜯어낸 나뭇조각을 빨아대곤 했다. 온종일 끝없는 구역질에 시달렸다. 왜 아무한테도 해 될 게 없는 걸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시간이 지나고 이것도 형벌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데 그때 이미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익숙해진 다음이었다. 나에게 더 이상 형벌로서 의미는 없던 셈이다.

이런 불편한 점을 뺀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다. 결국 시간을 어떻게 죽이느냐가 문제였다. 지난날을 더듬어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가끔 내 방을 떠올렸다. 한쪽 구석에서 출발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머릿속으로 열거하며 한 바퀴 도는 상상을 했다. 처음엔 금방이었다. 그런데 다시 할 때마다 조금씩 길어졌다. 가구 하나하나가, 그 안에 담긴 물건 하나하나가, 모든 물건의 디테일이, 그중에서도 무늬, 균열, 잘린 모서리, 색깔, 표면의 결이 떠올라서. 동시에 이 머릿속 목록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 하나 빼먹지 않고 열거하려 했다. 어찌나 열심히 했던지 몇 주 지나자 방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며 몇 시간씩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평소에 간과했거나 잊었던 부분들이 새로이 떠올랐다. 단 하루만 살았던 사람이라도 교도소에서 큰 문제 없이 100년은 살 수 있겠단 사실을 깨달았다. 지루해하지 않을 만큼 추억거리가 있을 테니. 어쩌면 그게 이점이기도 했다.

잠도 문제였다. 처음엔 밤에 잠이 잘 안 왔고, 낮에는 전혀 잘 수 없었다. 차차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고, 낮에도 잘 수 있었다. 마지막 몇 달간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잠만 잤달까. 남은 6시간은 식사, 용변, 회상, 체코슬로바키아 사람 이야기로 때웠다.

매트와 침대 판자 사이에 오래된 신문 조각을 찾은 참이었다. 천에 거의 달라붙어 누렇게 변색됐고 앞뒤가 비칠 정도였다. 사건·사고에 실린 기사였다. 도입부가 빠져 있었는데,

보아하니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체코 마을에 살던 남성이 돈을 벌러 마을을 떠났다. 25년 뒤에 부자가 되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남성의 어머니와 누이는 고향 마을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중이었다. 남성은 어머니와 누이를 놀래려고 아내와 아이를 다른 곳에 머무르게 한 채 혼자 어머니네 여관으로 갔다. 여관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남성을 못 알아보았다. 남성은 장난삼아 객실 하나를 잡았다. 수중에 든 자기 재산을 보여줬다. 밤중에 어머니와 누이는 재산을 훔치려 남성을 망치로 때려죽인 후 시체를 강물에다 던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사정을 모르던 아내가 여관으로 찾아가서 여행객의 신분을 밝혔다. 어머니는 목을 뺐다. 누이는 우물에 몸을 던졌다. 이 기사를 수천 번은 읽었을 거다. 한편으론 믿기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론 당연하다 싶었다. 결국 자업자득인 면도 있다고 생각했다.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여하간 수면, 회상, 신문 기사, 빛과 어둠의 교차 사이로 시간은 흘렀다. 교도소에 있다 보면 시간관념을 잃게 된다는 글을 분명 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나한테 별 의미가 없었다. 하루가 얼마나 길면서도 동시에 짧을 수 있는지 미처 몰랐었다. 분명 살아가기에 너무 길긴 했지만, 어찌나 늘어지던지 하루가 다른 하루의 경계를 허물 정도였다. 하루하루가 이름을 잃어갔다. 내겐 오로지 어제와 내일이라는 단어만이 의미를 가졌다.

어느 날 교도관이 내가 수감된 지 5개월째 됐다고 말했다. 사실이겠거니 했지만 잘 이해가 안 갔다. 어차피 감방 안에선 늘 같은 하루가 펼쳐졌고, 언제나 같은 일만 반복했다. 바로 그날, 교도관이 떠나고 나서 쇠그릇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그릇을 바라보고 웃으려고 노력해봐도 그저 심각해 보이기만 했다. 거울을 앞에 든 채 흔들어 보았다.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엄숙하고 슬픈 표정만 되돌아왔다. 하루가 저물어 갔고, 언급하기 싫은 시간이 되었다. 이름 없는 시간이었다. 저녁의 소리가 침묵의 행렬로 교도소 각층을 올라탔다. 천창으로 다가가 마지막 빛을 빌려 내 모습을 다시 한 번 봤다.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다. 어차피 나도 그 순간엔 심각했으니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 그런데 동시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 귀에 울려 퍼지던 소리였는데, 혼잣말이었던 걸 깨달았다. 그 순간 엄마 장례식 날 간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결국 막다른 길이었다. 그리고 누구도 교도소 안에서 맞이하는 저녁이 어떤지 상상할 수 없을 게다.

III

이듬해 여름이 어느새 지난여름을 대신한 썸이었다. 더위가 서서히 찾아오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급작스럽게 벌어지리란 걸 알았다. 내 사건은 중죄법원 마지막 개정기 때 다뤄질 예정이었다. 마지막 개정기는 6월 안에 끝난다. 심리가 시작되던 날, 바깥은 햇살로 가득했다. 변호인은 이삼일이면 심리가 끝날 거라 장담했다. 그는 덧붙였다. “게다가 이번 개정기에 피르소 씨 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잡혀서 법원이 바뀔 거예요. 피르소 씨 바로 다음이 어떤 존속살해범 차례거든요.”

아침 일곱 시 반이 되자 나를 데리러 왔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갔다. 경관 두 명이 나를 어둠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 들어가게 했다. 우리는 문 근처에서 기다렸다. 문 너머로 목소리, 호명, 의자 소리, 마을 축제에서 공연이 끝난 뒤 춤을 추려고 자리를 정리할 때와 같은 소란스러움이 들려 왔다. 경관들은 판사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들중한 명이 나한테 담배를 권했으나 거절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지” 물었다. 아니라고 대답했다. 더구나 재판관을 구경하는 게 나를 기대되기도 했다. 여태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다른 경관이 말했다. “그렇긴 한데, 결국 지치고 말아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방에서 작은 벨이 울렸다. 경관들이 수갑을 풀어줬다. 문을 열더니 나를 피고인석으로 데려갔다. 법정엔 사람들로 미어터졌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는데도 햇살이 군데군데 스며들었고, 공기는 벌써 숨 막혔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경관들이 나를 에워쌌다. 그때야 열 지어 나를 마주 보는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다들 나를 바라봤다. 배심원들이구나. 그런데 서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저 트램 좌석 앞에 선 느낌이었다. 이 이름 모를 승객들은 새로 올라탄 사람한테 놀림거리가 없을까 훑어보는 중이었다. 물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배심원들은 놀림거리가 아니라 범죄를 찾는 사람들이니까. 하여간 별 차이는 없었고, 어쨌든 내가 받은 인상은 그랬다.

닫힌 방 안에 사람이 이토록 많아 조금 어리둥절했다. 법정을 다시 둘러봤지만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다. 처음엔 다들 나를 보려고 앞다투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내가 관심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 때문에 다들 이 소란을 피운다는 걸 노력 끝에 이해했다. 경관한테 말했다. “사람이 정말 많네요!” 기자들 때문이라며 배심원석 아래 책상 근처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켰다. 경관이 말했다. “다들 왔군요.” “누가요?” 그는 재차 말했다. “기자들이요.” 경관과 아는 사이였던 기자 한 명이 경관을 보더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나이가 꽤 든 사람으로, 친절했고, 약간 쩡그리는 인상이었다. 기자는 경관과 뜨거운 악수를 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부르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슷한 부류끼리 모여 즐거워하는 사교 모임 같았다. 그리고 내가 괜히 긴 사람, 잉여물 같다는, 마치 불청객 같다는 이상한 느낌이 마음을 맴돌았다. 그래도 기자는 나한테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다.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기자는 덧붙였다. “그게요, 피르소 씨 사건을 좀 크게 실었답니다. 여름엔 워낙 기삿거리가 부족해요. 피르소 씨 사건과 그 존속살해범 이야기 말곤 딱히 실을 만한 게 없었죠.” 그러고는 기자들 사이로 살찐 족제비를 닮은 키 작은 남성을 가리켰다. 엄청나게 큰 검은 테 안경을 낀 사람이었다. 파리에서 파견된 특과원이란다. “저 사람이 피르소 씨 때문에 여길 온 건 아니에요. 존속살해범 재판을 취재하러 온 김에 피르소 씨 사건까지 다루게 된 거죠.” 나는 또 하마터면 고맙다는 말을 할 뻔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우스울지 생각했다. 기자는 나한테 손을 정중하게 흔들곤 떠났다. 몇 분 정도 더 기다렸다.

법복 차림의 변호인이 동료들한테 둘러싸여 도착했다. 기자들 쪽으로 가더니 악수를 했다. 농담을 주고받고 웃었다. 화기애애해 보였다. 벨이 법정에 올려 퍼지자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변호인이 내 쪽으로 오더니 악수를 한 후,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고, 괜히 나서서 말하지 말고, 나머지는 자기한테 맡기라고 조언했다.

내 왼편에서 의자를 뒤로 끄는 소리가 들렸다.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 보였다. 붉은 옷을 입고 코안경을 쓴 채, 법복을 조심스럽게 접으며 앉았다. 검사였다. 법원 경위가 판사들의 도착을 알렸다. 동시에 두 개의 큰 선풍기가 소리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판사 셋이 관련 서류를 들고 법정을 굽어보는 법대로 재빨리 걸어갔다. 두 명은 검은 옷, 한 명은 붉은 옷차림이었다. 붉은 법복을 입은 사람이 가운데에 앉더니 범모를 자기 앞에 놓고, 손수건으로 작은 대머리를 닦으며 공판의 개정을 알렸다.

기자들이 벌써부터 손에 펜을 들었다. 다들 무심해 보였고, 조금 빈정거린단 느낌을 줬다. 그래도 그중 회색 플란넬 옷과 파란 넥타이 차림의 유독 젊어 보이는 기자 한 명이 펜을 내려놓은 채 나를 바라봤다. 약간 비대칭인 그 얼굴에선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무척 맑은 두 눈밖에 안 보였다. 어떤 뚜렷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길이었다. 마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묘한 기분이었다. 아마 그 묘한 기분 탓에, 그리고 소송절차가 생소한

탓에,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배심원 선정, 재판장이 변호인, 검사, 배심원단에게 하던 질문(그럴 때마다 배심원들은 전부 법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공소장의 빠른 낭독. 내가 아는 장소와 사람 이름도 들려왔다. 그리고 변호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했다.

재판장이 증인 호명부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위가 내 주의를 끄는 이름들을 읊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막연했던 방청객 사이에서 양로원 원장과 수위, 다 늙은 토마 페레스, 레몽, 마송, 살라마노, 마리가 일어났다가 옆쪽 문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였다. 마리는 걱정스러운 손짓을 했다. 그들을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해 놀라던 참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셀레스트가 호명을 받고 일어났다. 셀레스트 옆에 식당에서 봤던 키 작은 여성이 보였다. 여성은 지난번처럼 재킷을 입었고, 여전히 또렷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나를 뵈히 바라봤다. 하지만 재판장이 말하기 시작해 따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재판장은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굳이 방청객들에게 정숙하라고 할 필요가 없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자기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공정하게 지휘할 임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정의에 입각해 받아들여질 것이며,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퇴정을 명령하겠다고.

갈수록 더웠고, 몇몇 방청객은 신문으로 부채질했다. 그래서 종이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계속됐다. 재판장이 신호를 보내자 경위가 짚으로 엮은 부채 세 개를 가져왔다. 판사들은 얼른 부채를 집어 들었다.

나에 대한 신문이 곧 시작됐다. 재판장은 차분하게 질문했다. 친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우선 인정신문부터 했다. 짜증이 나긴 했지만, 자칫 엉뚱한 사람을 재판하면 큰일이니 인정신문을 할 만도 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내가 한 행위를 읊기 시작했다. 세 문장에 한 번꼴로 나한테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때마다 변호인의 지시대로 “네, 재판장님.”이라고 대답했다. 재판장이 사건을 면밀하게 따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기자들은 내내 필기했다. 아까의 젊은 기자와 작은 자동인형의 시선이 느껴졌다. 트램에 나란히 앉은 승객들은 죄다 재판장을 향했다. 재판장은 기침하더니 서류를 들춰보고, 부채질하며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재판장은 이제부터 사건과 다소 상관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질문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엄마 이야기를 하려나 보구나 싶었다. 얼마나 귀찮던지. 왜 엄마를 양로원에 모셨는지 물었다. 간병하고 치료할 돈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힘들었는지 물었다. 엄마나 나나 서로 기대하는 게 없었고, 다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서로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 점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며 검사더러 질문이 더 있는지 물었다.

검사는 반쯤 등을 돌린 채 나를 바라보지 않으며, 재판장이 허락한다면 내가 아랍인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혼자 샘으로 돌아간 건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아닙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피고인은 무장한 상태였으며, 어째서 그 특정한 장소로 돌아간 건가요?” 나는 우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가 불쾌한 말투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부터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적어도 나한테 그랬다. 하지만 몇 차례 이야기가 오고 간 후 재판장은 일단 심리를 중단한 뒤 증인신문을 위해 오후에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나를 데리고 갔다. 호송차에 태운 뒤 교도소로 향했다. 교도소에서 식사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피곤이 올라오려는 순간 나를 도로 데리러 왔다. 모든 게 다시 시작됐다. 나는 아까와 같은 법정에서, 아까와 같은 얼굴들과 마주했다. 다만 훨씬 더웠고, 배심원들, 검사, 변호인, 몇몇 기자들은 기적처럼 어디서 쫓겨온 부채를 구해왔다. 젊은 기자와 작은 여성도 여전히 있었다. 그런데 둘은 부채질하지 않았고, 아직도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내 얼굴을 뒤덮은 땀을 조금 닦아냈다. 양로원 원장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조금 정신 차릴 수 있었다. 원장한테 엄마가 내 불평을 했는지 물었다. 원장은 그렇긴 한데 재원자가 피붙이 불평을 하는 건 워낙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내가 자기를 양로원에 보내서 엄마가 불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고, 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원장은 내가 장례식 날 보인 침착함 때문에 놀랐다고 대답했다. 더 자세히 말해달라는 요구가 이었다. 원장은 자기 구두 끄트머리를 보더니 내가 엄마를 보려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울지 않았고, 장례가 끝나자 엄마 묘지에 가서 묵상하지도 않고 바로 떠났다고 말했다. 장의사 직원 한 명이 내가 엄마 나이를 모른다고 해서 또 놀랐다고 덧붙였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재판장은 나에게 관한 증언이 맞는지 물었다. 원장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자 재판장은 “절차상 하는 질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재판장은 차장 검사한테 증인에게 할 질문이 더 있는지 물었다. 검사는 “없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어찌나 큰 목소리로, 어찌나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 말을 했는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고 싶다는 바보 같은 심정이 들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느껴졌으니까.

재판장은 배심원단과 변호인에게 질문이 더 있는지 물은 뒤 수위로 넘어갔다. 예의 의전이 반복됐다.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였지만. 수위는 증인석으로 가던 중 나를 바라

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그는 질문에 대답했다. 내가 엄마를 보러 하지 않았으며, 담배를 피웠으며, 잠을 잤으며, 카페오레를 마셨다고 말했다. 법정 전체가 술렁이는 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다. 수위더러 카페오레와 담배 이야기를 다시 말해달라고 했다. 차장 검사가 빈정거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변호인이 수위에게 나와 같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검사가 일어서며 격하게 항의했다. “도대체 지금 누가 범죄자입니까? 증언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로 검찰 측 증인을 욕보이는 질문을 하는 게 온당하긴 합니까? 그래 봤자 명명백백한 증언입니다!” 재판장은 어쨌든 질문에 답하라고 했다. 노인네는 난처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선 안 됐는데... 피르소 씨께서 권하시는 담배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덧붙일 말이 없는지 물었다. “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다만 제가 증인에게 담배를 권한 건 맞습니다.” 그러자 수위가 약간 놀라며 고맙다는 듯이 나를 바라봤다. 수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가 나한테 카페오레를 권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상당히 득의양양해하며 배심원들이 잘 참작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런데 검사가 우리 머리 위로 고함치듯 말했다. “네, 배심원 여러분께서 잘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이야 커피를 권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낳아준 분의 시신을 앞에 둔 아들은 마땅히 커피를 거절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수위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토마 페레스 차례가 되었다. 경위가 증언대로 부축해줘야 했다. 페레스는 엄마와 친분은 있었지만 나와는 장례식 날 딱 한 번 만났다고 말했다. 내가 그날 뭘 했는지 묻자 “그게 말입니다, 그날 너무 슬펐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마음이 아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실신을 했어요. 피르소 씨가 어땠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라고 대답했다. 차장 검사는 적어도 내가 우는 모습을 봤는지 물었다. 페레스는 못 봤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가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화를 냈다. 다소 과장된 목소리로 페레스한테 내가 “울지 않는 모습을 보았는지” 물었다. 페레스는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방청객들이 웃었다. 변호인이 소매 한쪽을 걷어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바로 이것이 재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게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검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 제목 부분을 연필로 두드렸다.

5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졌다. 그사이 변호인이 오더니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5분이 지나고, 셀레스트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불려갔다. 내가 신청한 증인이란 뜻이다. 셀레스트는 종종 내 쪽을 바라보며 손으로 파나마모자를 돌렸다. 가끔 나랑 일요일에 경마를 보러 갈 때 입던 새 정장을 입었다. 셔츠를 잠그기 위해 구리 단추를 하나만

한 걸 보니 옷깃은 달지 못한 모양이었다. 내가 자기 식당 손님인지 물었고 셀레스트는 “제 친구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남자답다고 답했고, 더 자세히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남자답다는 게 달리 설명이 필요하냐고 답했다. 내가 폐쇄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묻자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다고만 대답했다. 차장 검사는 내가 식대를 체때 지급했는지 물었다. 셀레스트는 웃더니 “그야 우리 둘 사이 일이지요.”라고 말했다. 내 범죄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셀레스트는 증언대에 두 손을 올렸다. 무언가 준비해온 눈치였다. “제가 보기엔 불운한 사고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불운은 불운입니다. 불운한 사고 앞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불운한 사고입니다.” 셀레스트는 계속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됐다면, 수고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셀레스트가 조금 멍하게 있었다. 할 말이 남았단다. 재판장은 간결하게 마치라고 했다. 셀레스트는 또 불운 이야기를 꺼냈다. 재판장이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바로 그런 불운한 사고를 판단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셀레스트는 자기 지혜와 선의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듯이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이 반짝거렸고, 입술은 떨렸던 것 같다. 나한테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무 손짓도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남성을 껴안아주고 싶었다. 재판장이 다시금 증언대에서 내려가라고 말했다. 셀레스트는 방청석으로 가 앉았다. 심리가 계속되는 내내 남아 있었다.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팔꿈치를 무릎에 괴고, 모자를 손에 쥐고, 오가는 말을 빠짐없이 들으며, 마리가 들어왔다. 모자를 썼는데, 여전히 예뻐다. 그래도 난 맨머리가 더 좋았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봉긋한 마리 가슴이 느껴졌다. 항상 약간 도톰하게 부푼 아랫입술도 보였다. 엄청 초조해 보였다. 곧바로 마리한테 언제부터 나를 알았는지 물었다. 마리는 우리가 같이 일하던 시절을 언급했다. 재판장은 마리와 내가 어떤 사이인지 알고 싶어 했다. 자기가 내 여자 친구라고 말했다. 다른 질문에선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 건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서류를 넘기던 검사는 갑자기 언제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지 물었다. 마리가 날짜를 댔다. 검사가 무심한 목소리로 그날은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날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선 약간 빈정거리면서, 굳이 민감한 문제를 들추고 싶진 않고, 이 상황이 마리한테 불편할 순 있지만, (여기서 그의 말투가 더 딱딱해졌다) 직무상 그런 사정을 일일이 고려해줄 순 없다고 했다. 결국 마리한테 우리가 관계를 가진 그 하루를 요약해달라고 요구했다. 마리는 말을 꺼렸지만 검사의 강권에 우리가 같이 해수욕했고, 영화를 보러 갔고, 내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차장 검사는 예심 때 마리에게 관련 진술을 듣고 당시 상영 중이던 영화를 알아봤다고 밝혔다. 마리더러 직접 무슨 영화가 상영 중이었는데 말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마리는 하얗게 질린 목소리로 페르낭델이 출연한

영화였다고 말했다. 마리가 말을 마치자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검사는 일어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킨 채,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은 자기 어머니가 사망한 이튿날 해수욕을 했고,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고, 코미디 영화나 보며 시시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가 앉는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런데 마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게 아니라며, 다른 사정도 있다며,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하도록 강요당했다며, 나를 잘 아는데 내가 잘못된 건 전혀 없다며. 그런데 재판장의 신호에 경위가 마리를 데리고 나갔고, 심리는 이어졌다.

이어서 마송이 나와 내가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말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했지만 다들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살라마노 말에도 사람들이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살라마노는 내가 자기 개 일로 잘 대해줬다고 말했다. 엄마와 나에 관한 질문도 받았다. 내가 엄마랑 더 이상 나눌 대화가 없어서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다고 대답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세요.” 살라마노가 말했다. 그런데 아무도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살라마노를 데리고 갔다.

다음으로 레몽 차례가 됐다. 마지막 증인이었다. 레몽은 나한테 작은 손짓을 하더니 곧바로 내가 결백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평가가 아닌 사실만 말하라고 지적했다. 묻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레몽은 그 기회에 자기가 피해자의 누이에게 손찌검한 뒤로 피해자가 자기에게 원한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장은 피해자가 나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이유는 없었는지 물었다. 레몽은 내가 해변에 있었던 건 우연한 결과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사가 어째서 내가 이 비극의 원인이 된 편지를 쓰게 됐는지 질문했다. 레몽은 그저 우연이라고 대답했다. 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우연이 양심에 끼친 폐해가 상당해 보인다고 응수했다. 레몽이 정부에게 손찌검을 했을 때 내가 개입하지 않은 것도 우연이었는지, 그 일로 내가 참고인 진술을 해준 것도 우연이었는지, 당시 내가 레몽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한 것도 우연이었는지 물었다. 끝으로 뭘 하며 먹고사는지 질문했다. 레몽이 ‘창고지기’라고 대답하자 차장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레몽을 포주로 안다고 밝혔다. 나는 레몽의 공범이자 친구였다. 그렇지 않아도 가장 더럽고 질 낮은 치정극이, 패륜아가 개입돼 더욱 악랄해진 셈이었다. 레몽이 반박하려고 했고 변호인도 항의했으나, 일단 검사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검사는 “더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의 친구입니까?”라고 레몽에게 물었다. 레몽은 대답했다. “네, 제 절친입니다.” 차장 검사는 내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레몽을 바라봤다. 레몽은 내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배심원단을 향해 말했다. “어머니가 사망한 다음 날 부끄

러운 줄 모르고 방탕한 짓을 일삼은 자가, 바로 그자가 하찮은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문란하기 짝이 없는 사건을 해결한답시고 말입니다.”

검사는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변호인이,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두 팔을 들며 소리쳤다. 소매가 내려가며 풀 먹인 셔츠 주름이 드러났다. “도대체 피고인은 어머니 장례를 치러서 기소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해해 기소된 겁니까?” 방청객들이 웃었다. 하지만 검사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법복을 바로잡곤, 존경하는 변호인처럼 순진하지 않고서야 그 두 범주의 사건 사이에 깊고, 비장하고, 본질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는 힘차게 외쳤다. “그렇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범죄자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묻은 죄책을 묻고자 합니다.” 방청객들은 이 발언에 강한 인상을 받은 모양이었다. 변호인은 어깨를 으쓱이며 이마를 뒤통은 땀을 닦아냈다. 변호인조차 동요한 모습이 었다. 나는 일이 내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다.

일단 여기까지였다. 법정을 나와 호송차에 탑승하며 여름 저녁의 냄새와 색깔을 잠시나마 다시 발견했다. 바퀴 달린 감방의 어둠 속에서, 내가 사랑한 도시가 들려주는 모든 친숙한 소리와, 간혹 만족감을 느끼던 어떤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소리를, 깊은 피곤에서 건져내듯 하나하나 되찾았다. 나른한 대기로 퍼지는 신문팔이들의 외침, 공원에 남은 마지막 새들, 샌드위치 장수들의 부름, 도시의 높은 굽잇길을 지나는 트램들의 우는소리, 그리고 밤이 항구 위로 기울기 전에 하늘이 자아내는 응성거림. 눈먼 채 도시를 돌아다니는 기분이었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까진 참 익숙했는데. 그래, 오래전 일이지만 내가 만족감을 느끼던 시간이었다. 그럼 가볍고 꿈도 없는 잠이 늘 나를 기다렸다. 그런데 무언가가 변했다. 다음 날을 기다리던 내가 마주한 건 감방이었으니까. 여름 하늘에 그어진 낮익은 길이 무구한 잠으로 인도해 줄 수 있듯이, 교도소로도 인도해 줄 수 있었다.

IV

피고인석에 앉아 있더라도, 남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건 언제나 흥미롭다.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하며 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어쩌면 범죄 자체보다도. 그나저나 변호인과 검사의 논변이 서로 그렇게 달랐던가? 변호인은 두 팔을 든 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감경사유를 주장했다. 검사는 두 손을 뻗고 감경사유가 없는 유죄라고 규탄했다. 그럼에도 다소 거슬리는 점이 있었다. 조심하긴 했지만, 나도 이따금 끼어들려고 시도했다. 그럴 때면 변호인이 “가만 계세요. 그편이 더 유리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면에선 나를 빼놓고 이 사건을 다루는 셈이었다. 모든 게 나를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내 운명을 결정지었다. 가끔은 모두의 말을 가로막고 외치고 싶었다. “세상에, 대체 누가 피고인입니까? 피고인도 중요합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따져보면 할 말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때 느끼는 흥미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예컨대 검사의 말은 금방 지겨워졌다. 전체 맥락과 동떨어진 몇 가지 장광설, 단편, 몸짓만이 내 흥미나 관심을 끌었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검사는 내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걸 증명하려 했다. 검사는 일렀다. “제가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중으로 말입니다. 우선 사실이 내보내는 선명한 빛 아래에서, 다음으로 이 범죄자가 지닌 영혼의 심성이 자아내는 음침한 조명 안에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의 사실관계를 요약했다. 내 냉담함, 엄마 나이에 대한 무지, 다음 날 여성과 함께 한 해수욕, 영화, 페르낭델, 마침내 마리와의 귀가. 검사가 ‘피고인의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검사의 말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나한텐 그저 마리였다. 그리고 검사는 레몽 이야기를 꺼냈다.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은 꽤 명료해 보였다. 그럴듯하게 들렸다. 나는 레몽 정부를 불러들여 ‘품행이 불량한’ 남성의 잔인한 손아귀에 넘기려고 레몽과 합의해 편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해변에서 레몽의 상대들을 도발했다. 레몽은 상처를 입었다. 나는 레몽한테 권총을 달라고 했다. 권총을 사용하려고 혼자 해변으로 돌아갔다. 계획대

로 아랍인을 쓰러뜨렸다. 기다렸다. 그리고 ‘임무를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침착하게, 분명하게, 이를테면 의도한 대로 네 발을 더 쫓다.

차장 검사는 말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피고인이 명확한 인식 하에 살인을 저지르기까지의 경위를 보여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건 평범한 살인이 아닙니다. 정상참작을 해줄 수 있는 무모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고인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이 말하는 걸 들으셨지요? 대답하는 요령을 알고 있습니다. 말을 골라서 할 줄 알지요. 자기가 뭘 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했을 리가 없습니다.”

귀 기울이고 있었다. 나를 영리하다고 평하는 게 들렸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에겐 장점으로 작용할 요소가 어째서 범죄자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하간 이 점이 내 관심을 끌었고, 그 뒤론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 검사가 하는 말이 또 들려왔다. “피고인이 자기 행위를 뉘우쳤던가요?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중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검사는 나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계속 비난을 퍼부었다. 사실 왜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됐다. 검사가 옳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 행위를 그다지 뉘우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물고 늘어질 줄은 몰랐다. 내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뉘우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심으로, 호의를 담아서까지 설명해주고 싶었다. 나는 항상 앞으로 벌어질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오늘 벌어질 일이든, 내일 벌어질 일이든. 물론, 내가 처한 상황을 보건대 누구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감히 호의를 보이거나 선의를 가져선 안 됐다. 그리고 나서 검사가 내 영혼 이야기를 하길래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다.

검사는,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의 영혼을 들여다봤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검사는 사실 나한테 영혼이랄 게 전혀 없다며, 나는 인간의 양심을 지키는 도덕관념이나 인간다움을 전부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어쩌면 피고인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걸 갖지 못했다고 피고인 탓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긴 법정입니다. 관용이라는 지극히 소극적인 덕목은, 쉽진 않겠지만 더 고결한 덕목으로, 정의라는 덕목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보여준 양심의 공백이, 사회를 깨멸시킬지도 모르는 나락에 불과할 땐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엄마를 대한 태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심리 때 했던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내 범죄를 말할 때보다 훨씬 길었다. 어쩌나 길었는지 마침내 아침나절의 열기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차장 검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 매우 낮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을 잇기 전까진. “여러분, 내일 바로 이 법정에서 가장 끔찍한 중죄가 다뤄집니다. 존속살해 사건

입니다.” 검사 말에 따르면 상상력마저 뒷걸음치게 할 잔혹한 폭력 범죄였다. 인간의 정의가 가차없는 처벌을 내리리라 감히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다. 그 범행이 불리일으키는 전율조차 내 냉담함 앞에서 느끼게 되는 전율을 당해낼 수 없을 지경이라고. 검사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도덕적으로 살해하는 자는 자기를 낳아준 분에게 살의를 품은 손을 갖다 댄 자만큼이나 사회와 척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좌우간 전자는 후자의 행위를 예비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예고하고 승인한다고. 검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다. “여러분. 피고인석에 앉은 저 사람이 내일 이 법정에서 심리할 살인에 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도 제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리라 확신합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이 말을 하며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았다. 마침내 자기 임무가 괴롭긴 하지만 단호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규범조차 무시했으니 나와 이 사회는 남남이란다. 인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혀 모르면서 거기에 기대려고 해선 안 된단다. “피고인의 목을 쳐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제 긴 검사 생활 동안 사형을 구형한 적이 더러 있었지만, 오늘만큼 절대적이고 신성한 명령의 의식과, 극악무도한 기운밖에 느껴지지 않는 한 인간의 얼굴 앞에서 느낀 전율이 제 고된 의무를 보상해주고, 균형 잡아주고, 환하게 비춰준 적은 없었던 까닭입니다.”

검사가 다시 자리에 앉자 꽤 긴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덩기도 했고, 놀라기도 해서 정신이 멍했다. 재판장은 조금 기침하더니 나한테 매우 낮은 목소리로 덧붙일 말이 없는지 물었다. 나는 일어섰다. 말을 하고 싶어서, 떠오르는 대로, 아랍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내 주장은 잘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내 변론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변호인의 의견을 듣기 전에 내가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빠르게, 버벅거리며, 우스꽝스럽게 들릴 거라 생각하면서,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웃음이 들렸다. 변호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곧바로 변호인에게 발언권을 줬다. 하지만 변호인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자기가 말하는 데 꽤 오래 걸릴 거라며 오후에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승낙했다.

오후, 커다란 선풍기는 여전히 법정의 짙은 공기를 휘저었고, 배심원들은 다색의 작은 부채를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흔들었다. 변호인의 변론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던 와중에 변호인이 “제가 살인을 저지른 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들려서 주의를 기울였다. 변호인은 나를 언급할 때마다 ‘저는’이라고 하며 계속했다. 나는 무척 놀랐다. 경관 쪽으로 몸을 기울여 변호인이 왜 저러는지 물었다. 경관은 조용히 하라더니 곧이어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다 저래요.” 내가 보기에는 나를 사건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내 존재감을 0

으로 줄여버리고, 어떤 의미에선 나를 대체해버리는 행위였다. 그런데 어차피 나는 이미 이 공판정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게다가 변호인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도발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다급히 주장하고는 그 역시 내 영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사에 비한다면 숨씨가 현저히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저 역시 이 영혼을 들여다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의 저 탁월하신 대리인과는 달리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책을 줄줄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하며, 근면하며, 고용주에 충실한 일꾼이고, 모두에게 호감을 사고, 타인의 불행을 동정한다는 걸 읽어냈다고 말했다. 자기가 보기에 나는 어머니를 가능한 한 오래 부양한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결국 내 벌이로는 나이 든 어머니를 보살필 수 없어서 양로원이 대신 보살펴 주리라 희망한 셈이었다. 변호인은 덧붙였다. “여러분, 저는 그저 의아합니다. 양로원 일로 길게 감론을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양로원이 유용하고 중요한 시설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국가가 직접 양로원들을 지원해주지 않느냐고 대답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장례식만큼은 언급하지 않았다. 변론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모든 장광설과, 내 영혼을 이야기한 모든 날과 끝없는 시간 탓에 모든 것이 현기증 나는 무색의 물이 되어버렸다는 인상을 받았다.

결국, 변호인이 말하는 도중 길거리 아이스크림 장수의 나팔소리가 법원의 모든 방과 법정을 가로질러 나한테까지 들려왔다는 것만 기억난다.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삶의 추억이 엄습해왔다. 거기엔 가장 초라하면서도 가장 끈질긴 기쁨이 있었다. 여름 내음, 내가 사랑한 동네, 어느 저녁 하늘, 마리의 웃음과 원피스. 문득 내가 여기서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목으로 치밀어 올라왔고, 안달이 났다. 재판은 이만 끝내버리고 감방으로 돌아가 잠자고 싶었다. 변호인이 하는 말은 흘러들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배심원들에게, 잠시 일탈했다는 이유로 정직한 일꾼을 사형대로 보내선 안 된다고 소리쳤고, 내가 이미 영원한 양심의 가책이라는 가장 확실한 형벌을 받고 있는 만큼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변호인은 지쳤다는 듯이 앉았다. 동료들이 변호인에게 악수를 청하러 왔다. “자네, 정말 훌륭했어.” 같은 말이 들려왔다. 심지어 나더러 그 훌륭함을 증언해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죠?”라고 내게 물었다. 동의하긴 했지만, 진심을 담은 칭찬은 아니었다. 너무 피곤했다.

그럼에도 날은 저물어 갔고, 더위는 누그러졌다. 길거리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저녁의 부드러운 손길을 짐작했다. 우리는 모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 같이 기다리긴 했지만 관련된 사람은 나뿐이었다. 다시 법정을 훑어보았다. 모든 게 첫째 날과 같은 상태였다. 나는 회색 재킷을 입은 기자와 자동인형 같은 여성하고 눈길이 마주쳤다. 그리고

보니 재판 내내 마리를 찾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잊은 건 아니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다. 마리는 셀레스트와 레몽 사이에 있었다. 내게 작은 손짓을 했다. 마치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마리는 약간 근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굳어 있어 미처 미소에 답하지 못했다.

판사들이 돌아왔다. 배심원들에게 빠르게 일련의 질문을 읽어줬다. “살인에 대하여 유죄” ... “계획적 범행” ... “정상참작” 등등. 배심원들은 밖으로 나갔고, 나는 작은 방에 들어가야 했다. 지난번에도 거기서 기다렸다. 변호인이 합류했다. 변호인은 몹시 수다스러웠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 있게, 호의적으로 말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며, 금고나 징역 몇 년 정도 선고되고 끝날 거라며.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파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변호인은 없다고 했다. 배심원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법률적 쟁점은 제기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했다. 아무 까닭도 없이 그냥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게 확실히 타당해 보였다. 변호인의 논리에 수긍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당연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서류가 넘쳐날 테다. 변호인이 말했다. “정 안 되면 상고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 기다렸다. 45분 가까이 흐른 것 같다. 마침내 종이 울렸다. 변호인이 나가며 말했다. “배심원 대표가 평결 결과를 읽을 겁니다. 뢰르소 씨는 판결문을 낭독할 때 들여보내 줄 거예요.” 문이 닫혔다.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다녔다. 가까이 있는 계단인지, 멀리 있는 계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법정에서 무언가를 읽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종이 다시 울리자, 문이 열렸고, 법정의 침묵이 내게 물려왔다. 침묵과, 젊은 기자가 내게서 눈길을 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의 묘한 느낌이. 마리 쪽은 바라보지 않았다. 그럴 겨를이 없었다. 재판장이 프랑스 인민의 이름으로 공공 광장에서 내 목이 잘리게 되리라는 말을 이상한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때야 사람들 얼굴에 서린 감정의 정체를 깨달았다. 분명 나뉠의 존중을 담고 있었다. 경관들은 나를 무척 친절하게 대했다. 변호인은 손으로 내 손목을 잡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 재판장이 덧붙일 말은 없는지 물었다.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자 나를 데리고 갔다.

부속 사제 방문을 거절했다. 세 번째 거절이었다. 할 말도 없고, 이야기 나누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조만간 보게 되리라. 요즘 내 관심은 어떻게 저 기계장치를 모면할지에 쏠려 있다. 불가피한 일에도 빠져나갈 길이 있을지. 감방을 옮겼다. 여기서 누우면 하늘이 보인다. 하늘만 보인다. 매일 같이 하늘의 얼굴빛이 낮에서 밤으로 기울기만 종일 바라본다. 누운 채, 머릿맡에 두 손을 괴고, 기다린다. 사형수 중에 저 냉혹한 장치를 모면한 사람이, 집행 전에 사라진 사람이, 경찰 경계선을 끊어낸 사람이 과연 있을지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사형 집행에 관한 이야기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후회됐다. 그런 문제엔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이 닥쳐올지 결코 알 수 없다. 나도 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는 더러 읽었다. 하지만 내가 호기심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 전문 서적도 있을 테다. 전문 서적에는 탈출 사례가 소개됐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한 번쯤은 바뀌가 멈춰 서지 않았을까? 이 불가항력의 계획이 진행되던 와중에, 우연과 운이 따라, 딱 한 번이라도 무언가 바뀌었을 지도. 단 한 번! 어찌면 그 한 번이면 충분했다. 나머지는 내 마음이 알아서 하리라. 신문은 사회에 진 빛을 자주 언급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 빛을 갇아야 했다. 그런데 그건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했다. 중요한 건 탈출 가능성이었다. 냉혹한 의식을 뛰어넘는 도약, 희망할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광란의 질주. 물론 희망이라고 해봤자, 달려가던 중 대뜸 충을 맞아 골목에서 쓰러지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없었다. 완전히 금지당했다. 기계장치가 나를 도로 붙잡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무례한 확신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확신의 근간이 된 판결과,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계속된 전개 사이에 터무니없는 불균형이 있었던 까닭이다. 판결문을 오후 다섯 시가 아닌 저녁 여덟 시에 낭독했다는 점이나, 완전히 다른 내용의 판결일 수 있었다는 점이나, 내의를 갈아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판단했다는 점이나, 프랑스 인민(아니면 독일 인민, 중국 인민)이라는 모호한 관념에 기대어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그토록 중요한 결정인데도 진지함이 많이 날아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럼에도 일단 내리지고 나면, 그 순간부터 판결은 내가 온몸을 짓눌러대는데 이 벽의 존재만큼이나 명백하고 진지한 효력을 지녔다.

그러다 엄마가 해주시던 아버지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다. 아버지와는 안면부지였다. 내가 아는 거라곤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밖에 없었다. 그는 살인자 사형 집행을 보러 갔다. 갈 생각을 하니 속이 메스꺼웠단다. 그래도 보러 갔었고, 돌아오는 길에 토했다. 아침이었는데 한참 토한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조금 역겨웠다. 이제는 이해가 갔다. 그게 참 당연했다. 사형 집행만큼 중요한 건 없고, 결국 사람이 진정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곤 사형 집행밖에 없다는 걸 왜 여태 깨닫지 못했을까! 만에 하나 교도소에서 나가게 된다면, 사형 집행은 모조리 보러 다니리라. 나갈 가능성을 고려하다니, 실수였다. 어느 이른 아침 경찰 경계선을 넘어서게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나가게 된다고 생각만 해도, 내가 사형 집행을 구경하러 왔다가 나중에 토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만 해도 독을 탄 기쁨의 물결이 마음에 차올랐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성적이지 않았다. 이런 가설을 세우도록 나 자신을 가만 놔둔 건 실수였다. 곧이어 지독할 만큼 추웠으니. 담요 밑으로 움츠러 들어야 했다. 덜덜 떨리는 이를 멈출 수 없었다.

당연하지만 언제나 이성적일 수는 없다. 예컨대 나는 가끔 법안을 만들어보곤 했다. 형벌 제도를 수정했다. 사형수에게 기회를 주는 게 핵심이었다. 천 분의 일 확률이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충분했다. 환자(나는 사형수가 ‘환자*’라고 생각했다)를 열에 아홉 죽일 수 있는 화학 약품을 만들면 될 것처럼 보였다. 환자도 그걸 안다는 게 조건이었다. 한번 꼼꼼하고 차분하게 검토해보자. 날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어떠한 기회도, 그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가. 재고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고 환자의 죽음을 결정했다. 종결된 사건, 확고한 결함, 돌이킬 수 없는 합의였다. 만약 놀랍게도 날이 빛나가면, 다시 시작할 뿐이었다. 그러면 상황이 조금 난처해지겠지. 사형수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게 될 테니까. 이게 바로 단두대의 결함이었다. 어떤 관점에서선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좋은 조직의 비결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형수도 결국 정신적으로 협력해야 했다. 그도 모든 일이 사고 없이 진행되길 바라게 됐다.

* 피르소는 사형수를 ‘patient’으로 지칭한다. 오늘날 ‘환자’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지만, 간혹 ‘수형자’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patient’이 ‘고통받는 자’, ‘감내하는 자’라는 라틴어인 ‘*patiens*’에서 파생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피르소가 사형수더러 ‘patient’이라고 할 때는, 사형수가 마치 환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수형자로서 성질도 드러내고, 사형수가 고통받고, 감내하는 자라는 점 또한 은연중에 드러낸다.

게다가 나는 이 문제들에 관해 여태 부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단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단으로 된 사형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계단을 딛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1789년 혁명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배우거나 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크게 화제가 됐던 어떤 사형 집행 당시 신문에 실렸던 사진 한 장이 기억났다. 사실 기계는 땅바닥에 그대로 놓였다. 그보다 간단할 순 없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다. 더 일찍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이상할 정도였다. 사진에 실린 기계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깔끔하고, 번쩍거렸다. 인상적이었다. 우린 언제나 모르는 걸 과장해서 생각한다. 모든 것은 오히려 간단했다. 기계는 다가오는 사람과 같은 높이에 있다. 사형수는 마치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듯 기계에 다가선다. 역시 난처한 상황이었다. 사형대를 오르고, 광활한 하늘을 향해 상승한다면 상상력이 매달릴 수라도 있었다. 한편, 여기선 기계장치가 또다시 모든 걸 짓눌렀다. 조심스럽게, 약간 수치스럽게, 무척 정교하게 죽임을 당했다.

늘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며 지냈다. 새벽과 상고. 그래도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에 정신을 쏟고자 애썼다. 하늘이 초록색으로 변했다. 저녁이었다. 다시 생각의 흐름을 돌려보려고 했다. 내 심장에 귀를 기울였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이 소리가 언젠간 멈출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를 제대로 상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장 박동이 머리에까지 미치지 않을 찰나를 떠올려보려고 시도했다. 헛수고였다. 새벽이나 상고가 여전히 머리에 맴돌았다.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가장 이성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새벽에 온다. 결국 그 새벽을 기다리며 밤을 보냈다. 갑작스레 놀라는 건 질색이었다. 무언가가 닥칠 때 맨정신인 게 낫다. 그러다 보니 낮에만 잠깐 눈을 붙였고, 밤은 지새웠다. 하늘에 난 창으로 빛이 태동하기만을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들이 으레 작업을 치르는 시간 즈음이 가장 힘들었다. 자정이 지나면, 나는 기다렸고, 동정을 살폈다. 내 귀가 이토록 많은 소리를 감지한 적은 없었다. 그토록 작은 소리를 분간한 적도. 게다가 어떤 면에선 나는 그 기간 내내 운이 좋았던 셈이다. 발걸음 소리를 들은 적은 없으니. 엄마는 우리가 전적으로 불행해지지 않는다고 종종 말씀하셨다. 다채롭게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과 감방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며, 감방에 앉은 채, 엄마 말씀에 수긍했다. 얼마든 발걸음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었다. 내 심장이 터져버렸을지도 모른다. 비록 자그만 기척에도 문가로 달려갔지만, 비록 귀를 나무에 갖다 댄 채 내 숨소

리가 들리기를 실성한 듯이 기다렸지만, 숨소리가 흡사 개 혈떡이듯 쉬어버려 놀랐지만, 심장은 결국 터지지 않았다. 또 스물네 시간을 벌게 됐다.

낮에는 종일 상고를 생각했다.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생각을 뽑아낸 것 같다. 제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 따졌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항상 최악을 가정했다. 상고 기각. “그럼 죽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보단 먼저 죽겠지. 분명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사실 서른에 죽든 일흔에 죽든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모르진 않았다. 당연하다. 어찌 됐든 다른 남성이나 여성이 살아갈 테니까. 수천 년 동안 그런 식일 것이다. 결국 이보다 명백한 건 없었다. 지금 죽든 20년 후에 죽든, 죽는 건 여전히 나였다. 그 순간, 20년을 더 살아간다는 생각에서 끔찍한 비약을 느껴 사유가 조금 방해됐다. 20년 뒤 내가 이 상황에 봉착하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할지 상상해보며 비약을 메꿨다. 일단 죽는다 치면, 언제 어떻게 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확실했다. 그러므로(이 ‘그러므로’가 사유에서 표상하는 모든 걸 놓치지 않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므로 상고 기각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순간, 오로지 그 순간, 나한테 일종의 권리가 주어졌다. 두 번째 가설을 다뤄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한 셈이었다. 감면. 피와 몸이 솟구치며 터질 듯한 기쁨으로 눈을 따갑게 했다. 가라앉히느라 귀찮았다. 이 외침을 진정시키고 누그러뜨려야 했다. 태연하게 두 번째 가설을 다뤄야 했다. 그래야 어차피 첫 번째 가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다 잘 수긍할 수 있었다. 마음이 진정되면 한 시간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그거라도 어딘가 싶었다.

그즈음 부속 사제 방문을 또다시 거절했다. 누운 채 금빛 감돌기 시작한 하늘을 보며, 여름 저녁이겠구나 싶었다. 막 상고를 포기한 참이었다. 몸을 규칙적으로 순환하며 일렁이는 피가 느껴졌다. 사제를 만날 필요는 없었다.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리를 생각했다. 편지를 못 받은 지 꽤 오래됐다. 그날 저녁, 곰곰이 생각해봤다. 마리도 사형수의 정부로 살아가기 지쳤겠지. 아프거나 죽은 걸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지. 이제 갈라진 우리 몸 이외엔 우리를 연결하거나 연상시키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때부터 마리가 떠올라도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다. 마리가 죽었다면 더 이상 내 알 바 아니었다. 당연했다. 내가 죽고 나면 다들 날 잊을 테니까. 죽은 이상 난 그들과 무관했다. 그렇게 생각한들 마음이 아프지조차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부속 사제가 들어왔다. 사제를 보니 몸이 조금 떨렸다. 사제는 눈치를 채곤 겁먹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보통 다른 시간에 오지 않느냐고 했다. 사제는 그저 우정 어린 방문일 뿐이라며 내 상고에 대해선 알지도 못하고 아무 관련도 없다고 대답했다. 침

상에 앉더니 가까이 오길 권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래도 무척 온화해 보였다.

부속 사제는 팔뚝을 무릎에 괴고, 고개를 숙여 두 손을 바라보며 한동안 앉아 있었다. 가늘고 근육 잡힌 손이었다. 민첩한 두 마리 짐승 같았다. 사제는 두 손을 천천히 비볐다. 그러고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찌나 오래 그 자세로 있었는지 순간 사제의 존재를 망각할 뻔했다.

그런데 사제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왜 제 방문을 거절하셨나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확실한지 물었다. 굳이 자문해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중요하지 않은 질문 같았다. 그러자 사제는 몸을 뒤로 젖히더니 벽에 등을 기대고, 손을 펴서 허벅지 위에 올렸다. 사제는 마치 혼잣말하듯이, 때로 무언가를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사제는 나를 바라보더니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대답했다. 어쨌든 내가 무엇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었지만,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는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다. 마침 사제가 말하는 거엔 관심이 없었다.

사제는 시선을 돌리고선,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절망에 빠져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지 물었다. 절망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줬다. 겁이 났을 뿐이었다. 당연히 겁이 났다. 사제가 말했다.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제가 만난 사형수들은 모두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야 그들 마음이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그들에게 시간이 충분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반면 나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지 않았고, 관심 없는 일에 관심을 두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그 순간 사제는 짜증이 난다는 듯한 손짓을 했다. 하지만 사제는 몸을 바로 세우고 사제복 주름을 매만졌다. 마치고 나서 나를 ‘동지’라 부르며 말을 걸었다. 내가 사형수라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란다. 자기가 보기엔 우리 모두 사형수나 다름없다며. 그런데 나는 사제 말을 끊고 그건 같지 않다고, 더구나 전혀 위로가 돼주지 못한다고 했다. 사제도 인정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오늘이 아니어도 언젠간 죽음을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도 같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 끔찍한 관문을 어떻게 맞이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도 딱 지금처럼 맞이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더니 사제는 일어서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익숙한 놀이였다. 에마뉘엘과 셀레스트와도 자주 즐겼던 놀이다. 보통 그들이 눈을 돌리고 말았다. 사제도 제법이었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역시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정녕 희망을 품지 않으십니까? 온 존재가 소멸하리란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네.”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사제는 고개를 숙이고 도로 앉았다. 나한테 연민을 느낀다. 사제는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사제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내가 몸을 돌려 천창 아래로 갔다. 어깨를 벽에 기댔다. 사제 말을 흘려들었다. 또 질문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다 사제가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흥분해 보이길래 주의를 기울였다.

상고야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최악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단다. 주님께 지은 그 최악을 떨쳐내야 한다고. 인간의 정의는 하느님의 정의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는 그래도 전자가 내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사제는 그걸로는 최악을 씻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최악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단지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나는 유죄였고, 그 대가를 치르면 그만이었다. 내게 뭘 더 요구할 순 없었다. 그러자 사제가 다시 일어났다. 감방이 하도 좁아서 몸을 움직이려면 별다른 대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앉거나 일어서야 한다.

내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사제는 내 쪽으로 한 발짝 다가오고선 멈췄다. 감히 더 가까이 올 수 없다는 듯이. 사제는 창살 너머 하늘을 바라봤다. “그건 오해입니다, 신자님.” 사제가 말했다. “더 많은 걸 요구받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구받으실 겁니다.” “뭘요?” “대면하셔야 합니다.” “뭘 대면해요?”

사제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어느덧 몹시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돌덩이들은 고통에 절어 있군요. 돌덩이들을 볼 때마다 번민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깊숙이 알고 있어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사형수들조차 어둠 속에서 나타난 신성한 얼굴을 보았답니다. 바로 그 얼굴과 대면하셔야 합니다.”

나는 조금 흥분했다. 몇 달째 이 성벽을 보고 있었다. 내겐 세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벽이 더 친숙했다. 오래전, 벽에서 얼굴을 찾아보려고 했었다. 욕망을 불태우는, 태양 빛 얼굴을. 마리 얼굴을 찾으려 했다. 부질없었다. 이젠 그만됐다. 어쨌든 땀에 전 이 돌덩이에서 무언가 솟아오르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부속 사제는 슬프다는 듯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완전히 벽에 등을 기댔다. 햇빛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사제가 급하게 몇 마디를 했지만 제대로 못 들었다. 그러더니 나를 꺼안아도 될지 물었다. “안 됩니다.” 나는 대답했다. 사제는 몸을 돌리더니, 벽 쪽으로 걸어가 손으로 벽을 훑었다. “그토록 지상을 사랑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사제는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제는 등을 돌린 채 한동안 있었다. 사제를 보고 있자니 괴로웠고 귀찮았다. 인제 그

만 나를 놔두고 가라고 말하려던 참에 사제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리며 갑자기 폭발하듯 외쳤다. “차마 못 믿겠습니다. 분명 내세를 바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지만 그건 부자이길 바라거나, 더 빨리 헤엄치길 바라거나, 더 나은 입 모양새를 바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제가 내 말을 끊고는 내세가 언제 보이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소리쳤다. “지금 삶을 회상할 수 있는 삶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바로 덧붙였다. 사제는 다시 하느님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내가 사제에게 다가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지막으로 설명해줬다. 하느님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사제는 주제를 바꿔보려고 했다. 왜 자기를 ‘신부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지 물었다. 듣자하니 화가 났다. 우리가 부자 관계는 아니지 않으냐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 편이라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신자님.” 사제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저는 신자님 편입니다. 마음의 눈이 멀어 모르실 뿐입니다. 신자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터져버렸다. 나는 목청껏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욕을 퍼부었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사제복 깃을 부여잡았다.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채 마음에 담았던 말을 전부 쏟아냈다. 사제는 확신에 넘쳐 보였지? 그렇지? 그래 봤자 여성의 머리카락 한 올 값어치조차 없는 확신이었을 뿐이야. 자기가 살아있긴 한지도 확실히 몰랐을걸? 산송장처럼 지냈잖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여? 그래도 난 내게 확신했어. 모든 것에 확신했지. 적어도 저 사제보단 말이야. 내 삶을 확신했고, 다가올 죽음도 확신했어. 그래, 그것밖에 없었어. 그래도 적어도 그 진실을 붙들었어. 진실이 나를 붙든 거 못지 않게. 내가 옳았지, 지금도 옳아. 언제나 옳단 말이야. 난 이런 식으로 살았고, 다른 식으로도 살 수 있었어. 이걸 했고 저걸 하지 않았어. 그런 건 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걸 했어. 그다음엔? 마치 내 존재가 증명될 순간을, 그 첫새벽을 평생 기다려왔달까? 무엇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어. 난 왜 그런지 알고 있었지. 사제도 알고 있었어. 내 미래 깊숙이, 내가 겪은 이 부조리한 삶 내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월을 가로질러 어두운 숨결이 불어왔어. 그런데 그 숨결이,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현실감 없는 세월 동안 내가 겪은 모든 일을 균등하게 만들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죽은들 어떻고,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지 알 게 뭐야. 하느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삶도, 간택하는 운명도 다 뭐 상관인지. 어차피 하나의 운명만이 날 간택하잖아. 다른 사람들도 죄다 간택될 특권을 누리겠지. 그러곤 사제가 그러듯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대고 말이야. 사제는 이걸 이해할까? 정말? 어차피 누구나 특권을 누릴 뿐이야. 누구든 언젠간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사제도 사형 선고받게 될걸? 살인으로 기소됐다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고 사형을 선고받은들 무슨 상관이야? 살라마노 개는 그 아내만큼이나 의미 있었어. 자동인형 같은 작은 여성은 마송이 결혼한 파리 여성만큼이나, 나랑 결혼하길 바랐던 마리만큼이나 유죄였고. 셀레스트보다 못한 레몽이 그 못지않은 내 친구라 한들 뭐 어때? 마리가 오늘 다른 피르소와 키스한들 뭐 상관이야? 저 사형수가 이걸 이해할까? 그리고 내 미래 깊숙이... 숨 막혀 하면서도 이 모든 걸 말했다. 그런데 벌써 사제를 내 손에서 빼냈다. 교도관들은 내게 경고했다. 한편, 사제는 교도관들을 진정시키고 나를 잠깐 말없이 바라봤다. 사제는 눈물로 가득했다. 뒤돌아서더니 나가버렸다.

사제가 떠나고, 나는 평온을 되찾았다. 지쳐서 침상에 몸을 던졌다. 잠이 든 것 같다. 일어나자 별빛이 얼굴을 밝혀줬으니. 들판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밤 냄새, 흙냄새, 소금 냄새가 관자놀이를 식혔다. 잠든 여름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평화가 밀물처럼 내 안에서 차올랐다. 그 순간, 밤이 끝날 무렵,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와는 이제 영원히 무관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렸다. 참 오랜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생각했다. 왜 삶을 마치실 무렵 ‘약혼자’를 두셨는지, 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셨는지 이해가 갔다. 거기, 거기서도, 생명이 꺼져가는 양로원 주변에서도 저녁은 쓸쓸한 휴식 같았다. 죽음이 임박하자, 엄마는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모든 걸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됐다고 느끼셨다. 누구도, 그 누구도 엄마를 두고 슬퍼할 권리가 없다. 나도 모든 걸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된 기분이었다. 마치 이 거대한 분노가 내게서 악을 씻겨내고 희망을 비워냈다는 듯, 징조와 별로 가득한 밤 앞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다정한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나와 그토록 닮았다니, 형제나 다름없다니, 나는 행복했고, 또 행복하구나. 이제 다 이루어지도록, 덜 외롭도록, 사형 집행일에 많은 관중이 몰려와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이해주길 바랄 뿐.